



코스피 2510.23 (-3.05)	코스닥 829.99 (-9.52)
금리 (연고래 3년) 2.15 (+0.01)	환율 (원-달러) 1067.10 (+0.01) (9일)



[뉴스]
남개단 코스닥
자율·독립성 높이고
상장요건 완화
02

남과 북, 드디어 만났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군사당국회담은 별도 개최기로

북한이 한 달후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

이와 함께 군사당국회담도 별도 개최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는 남한과 북한이 스스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다만 우리측이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은 미지수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남북은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에 가까운 시간동안 고위급 회담, 4+4 회담, 3+3 회담 등 수차례의 회담을 거치며 향후 남북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은 남한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고위급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할 방침이다. 군사당국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이산가족상봉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열린 고위급회담에 이어 추가 고위급회담, 각 분야별 회담도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북은 공동현안을 하나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한 남북 양측은 오후 8시5분께 공동보도문 채택을 위한 종결회의를 열었다. 종결회의에는 남북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다.

2년 1개월만에 열린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에는 우리측에선 조 장관 외에도 천해성 통일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참석했다. 북측에선 리 위원장 외에 전중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함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4대 은행 1년 새 5000명 줄어

은행원 떠난 자리, 로봇이...

비대면 강화로 인력감축
단순업무 로봇이 대체해

점포 수도 꾸준히 줄지만
효율성 좋은 소형점포 늘어

〈4대 시중은행 직원수·점포수 추이(최근 3년간)〉

은행	'17년 9월 말		'16년 9월 말		'15년 9월 말	
	직원수*	점포수**	직원수	점포수	직원수	점포수
신한은행	13468	900	13812	870	13867	900
우리은행	14299	875	15015	905	15090	967
국민은행	16904	1062	19680	1118	19608	1154
하나은행	13356	780	14480	885	14206	932
합계	58027	3617	62987	3778	62771	3953

*직원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만 집계 **점포수에 지점, 출장소, 사 무소 포함

인터넷·모바일 금융거래가 늘면서 은행들의 대표적인 대면 채널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도 시중은행들이 경영 전략으로 '디지털 금융 강화'를 내세운 만큼 직원·점포 축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로봇 은행원과 소형 점포를 도입해 빈자리를 메운다는 방침이다.

◆ 1년에 5000명 짐싸... 빈자리엔 '로봇'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수는 2017년 9월 말 5만 8027명으로 1년 만에 7.9% (4960명) 줄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전체 조서서비스에서 인터넷뱅킹 비율은 82.7%에 달했다. 금융소비자 10명 중 8명은 은행 점포를 찾지 않는 셈이다.

이에 은행들은 희망퇴직 등으로 꾸준히 직원 수를 줄여 왔다. 특히 올해는 은행권의 희망퇴직 나이가 만 40세까지 낮아지는 등 연초부터 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

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1978년생)부터 희망 퇴직 신청을 받았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임금이크제 적용 직원과 2019~2020년 임피제 전환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했다.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급증에 따라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원들이 떠난 자리는 로봇으로 메우는 추세다.

우리은행은 감정인식 휴머노이드 로봇인 '페퍼'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페퍼는 로봇 은행원으로서 창구 안내, 금융상품 추천, 이벤트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기업여신 실행 업무, 중고차 시세 정보 수집, 매출 실소유자 정보 검증,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가격 적정성 점검 등 총 4개 분야 업무를 자동화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펀드추천 서비스 'S로보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금융 앱 '핀크' 내 AI 로봇 '핑고(Fingo)'를 통해 자금관리 방안 추천, 금융진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안연배 금융경제연구소 이사는 최근 국내 은행 임직원 376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4차 산업혁명시대 은행원의 고용위험 실증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은행원의 62.2%가 로봇과 AI의 도입으로 직무가 대체되는 시기를 2025~2030년쯤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점포 폐쇄 대신 '소형 점포'

국내 은행의 점포 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국내 점포 수는 2015년 9월 말 기준 3953개에서 2016년 9월 말 3778개, 2017년 9월 말 3617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12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

CES 스마트시티 둘러싼 IT 각축전

美 라스베이거스서 오늘 개막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8' 개막을 하루 앞두고 손님맞이로 분주했다. 밤늦은 시간까지도 전시관 준비에 한창이었다. 전시회가 열리는 컨벤션센터 주변에는 글로벌 IT기업들이 내건 옥외광고가 먼저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18' 개막을 이틀 앞둔 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은미 기자

〈관련기사 6·7면〉

올해 CES 슬로건은 초연결성을 앞세운 '스마트시티'다. 기조연설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핵심 트렌드와 이슈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

기조연설의 포문은 글로벌 접착제 회사인 테크니크 브라더스 CEO가 열었다.

테크니크 CEO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발견된 '멜트다운·스펙터' 보안 결함 문제와 대한 해명과 함께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지도 제작업체인 맵 구축을 중국에 확장시키기 위해 인텔과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개막일인 9일에는 CES 주관사인 CTA의 개리 사피로 회장을 비롯해 미국 자동차제조사 포드의 집 해킷 CEO와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우뚝선 화웨이의 쉰 슈머비즈니스그룹의 리처드 유 CEO가 마이크를 잡는다. 10일에는 마시언 쟈크스 컴캐스트 케이블 사장과 존 마틴 터너 CEO, 로버트 카인을 유튜브 사장이 나선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해 소니·파나소닉·화웨이·TCL 등 전자업체, 구글·알리바바 등 인터넷업체, 보

시·도요타·혼다·닛산 등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각각 보유한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전시장에서 소개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기업 CEO들의 참석도 눈길을 끈다. 구본준 LG그룹 부회장과 정희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각각 8년, 4년 연속으로 CES 현장을 찾았으며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처음으로 CES를 방문한다. SK그룹에서는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CES에 참가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n@

삼성, 사상최대 영업이익 年 54兆

총수부재로 신사업 추진 늦어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 50조원을 넘어서며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그러나 신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어 미래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9일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2017년 4분기 매출 66조원,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3조3300억원에서 23.76%, 영업이익은 29조2400억원에서 63.77% 증가한 기록이다.

〈본지 1월8일 1면 참조, 관련기사 3면〉

2017년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239조6000억원, 영업이익 53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201조8700억원에서 18.69%, 영업이익은 29조2400원에서 83.31% 성장했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전까지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최대 기록은 2013년의 36조7900억원이었다.

사상 최대 실적은 유례없는 호



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이끌었다. 반도체(DS) 부문이 4분기 거둬들이는 영업이익은 약 1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에 이어 중국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D램 가격은 85%, 낸드플래시 가격은 32.7% 인상됐다.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에서 D램 점유율 47%, 낸드플래시 점유율 35%로 확고한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가격 인상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이다.

IT와 모바일(IM) 부문에서는 신제품 공개 시기와 맞물린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3분기보다 적은 2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점쳐진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스마트폰용 소형 OLED 패널 물량 증가와 수출 개선으로 약 1조8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전(CE) 부문 영업이익은 1조원 미만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당분간 호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한편,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을 직접 견제하는 동시에 반도체 굴기를 가속해 자국 수요 상당부분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수요의 70%까지 자체 소화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현지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불러 예담(約談)을 실시했다. 예담은 중국 정부가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전 구두로 경고하는 최후통첩의 의미를 갖는다. 예담에서는 반도체 가격 인상을 억제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기자 sesung@

날개단 코스닥... 자율·독립성 높이고 상장요건 완화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
“자본시장 모든 제도·인프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한국거래소에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꼽았다.

그는 혁신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성장해 나

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대략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준다”며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하고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도록 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스닥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심사 업무를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거래소의 경영성과 평가 체계도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 e-up)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아울러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해당 지수에 기반한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상품 출시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요건은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최 위원장은 “그간 상장을 차단해왔던 ‘계속사업이익 요건’ ‘자본잠식 요건’을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요건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에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는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에 조기에 적발, 퇴출하고 상장시 보호예수 의무는 확대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또 “비상장 시장에서 코넥스 시장,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편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 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증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일 발표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채신호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백운규 장관, 정책자문위 개최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정책대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2018년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정책자문위는 산업부 정책 방향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 연구원, 전문직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올해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백 장관은 “산업부 정책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자문관이 산업부의 한 식구로서 솔직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정책자문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이달 중 발표될 업무보고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현장과 전문가 목소리를 계속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줄 News

정책·사회

▲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 중 주요 정책과제인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 서울시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도입한다.

산업

▲ 삼성전자가 2017년 한 해 매출 240조원과 영업이익 53조원을 기록했다. 잔치를 벌여도 아쉬울 실적이지만, 반도체 율리 심화와 악화된 경영 환경으로 삼성전자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 한상범 LGD 부회장이 2020년 OLED TV 시장이 65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비중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

금융·마켓

▲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비은행·비이자 부문을 강화해 그룹의 수익을 다변화하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경영전략을 내세웠다.

▲ 정부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가능성을 무기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유통

▲ 롯데그룹이 오는 10~11일 양일간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 신동빈 회장의 복심으로 그룹 내 2인자로 떠오른 황각규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1년 남은 중기중앙회장 선거, 벌써 물밑전?

중기협동조합법 의결 취소
회장 후보자격 강화에 제동

KBIZ 중소기업중앙회

1년도 넘게 남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전이 벌써부터 서서히 전개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 문턱을 앞두고 있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법사위에서 ‘원안 의결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면서다.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지난 2015년 취임한 현 박성택 회장은 내년 2월 말까지다.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시 후보자의 자격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과’했다가 ‘의결 취소’를 결정한 법사위의 관련 개정안 해프닝으로 선거 1년을 남겨놓고 전초전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체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기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해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개정안엔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임기를 두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중기중앙회장 선출시 임후보 자격을 ‘정회원의 대표자’로 한정하는 등 선거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산자중기위에선 개정안 내용을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항목은 처리 과정에서 빠졌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장 임후보 자격에 대한 규정을 놓고 일부에선 이견도 있었지만 결국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산자중기위에서 넘어온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돼 본회의로 넘어가는 듯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거쳐 본격 시행되면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임후보자는 ‘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

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아닌 ‘정회원의 대표자’만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자격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그런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중기중앙회장 선출과 관련해 개정된 내용이 없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해서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 확인 결과 중앙회장 임후보 자격과 관련한 개정안이 있었다. 그래서 간사와 협의를 거쳐 문제제기를 했다.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원안 의결 부분을 취소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 위원장은 당시 중기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최수규 차관에게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놓고 “(중기)중앙회장 임후보 자격과 관련된 논란은 없어졌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위원회가 이처럼 정부쪽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개정안을 그대로 통

과시켰던 것이다.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각 위원회에서 넘어온 수많은 개정안을 (법사위 소속)의원들이 꼼꼼히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법안도 정부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차관에게 ‘문제될 소지가 있느냐’ 질의했고, 차관이 ‘없다’고 답해 통과를 시켰다가 나중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고 계류하게 됐다”면서 “이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차관에게 추가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차관이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추가로 확인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서 계류된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초 선거를 염두에 두고 중기중앙회장 후보의 자격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려면 법안이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이처럼 제동이 걸린 것이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중기중앙회는 정회원의 대표를 넘어 중소기업의 대표 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회원의 대표만이 중앙회장에 임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거처럼 정회원의 추천을 받으면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곡물 중심’ 해외진출, 품목 확대·연관산업 동반공략

농식품부, 5개년 종합계획
미래식량공급기반 확보 추진

정부가 해외 농업진출 확대를 통한 농산업 국제경쟁력 향상과 미래식량공급기반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품목을 다양화하고, 진출 농기업과 농기자재 기업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산업간 연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2018~2022)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민간단체 설립, 해외농업센터 개설 등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곡물수급 불안 대비, 해외농지 확보 및 곡물생산 등 식량공급기반 구축에 주력했다. 그 결과 5년 새 해외 개발면적이 33% 증가하고 해외 식량확보량도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지만 해외 진출기업이 현재에 적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진출품목 확대와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적응을 위한 농지임차·자재비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자금 등 정책지원 대상자 선정시 국내 수입이 많은 식품 원료를 품목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곡물과 같이 지원해 진출 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러시아 등 북방지역과 동남아 지역을 해외진출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북방지역은 기업진출과 투자를 확대해 미래 동북아 식량생산기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농여건이 비교적 낙후된 동남아 지역은 국내 선진 영농·가공 기술의 현지적용을 중심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곡물중심의 해외농장개발에서 농산업 전반의 해외진출로 개편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삼성전자, 53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웃지못한 이유

반도체 편중에 中 기업 추격... 총수 부재로 미래 불투명

AI·IoT 등 4차 산업혁명 시장서 대규모 M&A 중단 등 문제 도출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최근 몇 년간의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 53조원을 달성했지만 표정이 밝지는 못하다. 사업은 잘 됐지만 대내외적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나쁘기 때문이다.

2017년 삼성전자는 잠정매출 239조 6000억원, 잠정 영업이익 53조 6000억원의 호실적을 기록했다. 2016년 실적(매출 201조 8700억원·영업이익 29조 2400억원)은 물론, 사상 최대치였던 2013년 실적(매출 228조 6900억원·36조 7900억원)보다도 큰 폭의 성과를 기록했다.

◆반도체 편중...전망은 불투명

다만 이 실적은 사업이 고르게 성장한 결과라기보다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누린 결과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4분기에 반도체 사업에서만 약 11조원의 수익을 냈다. 연간 기준으로는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약 35조원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호황 덕에 삼성전자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인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일부 D램 제품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의 53조 6000억원을 벌어들이며 연간 영업이익의 50조원 고지에 올라섰다. 또 연간 매출액은 239조 6000억원으로 24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모습. /연합뉴스

영업이익률이 60%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현 시장상황이 장기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IoT,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보급되며 반도체 소비량이 급증해 장기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며 치킨 게임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을 낙관하는 측에서는 과거 상황을 근거로 든다. 1994년 PC 보급이 시작되며 D램 시장은 연 78% 성장을 지속했

다. 뒤이어 인터넷까지 보급되며 반도체 시장 성장세는 유지됐다. 경쟁사 대비 정밀한 미세공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는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갖췄다. 공정이 미세해수록 전력소비는 적고 성능은 뛰어나기에 수요가 많다. 반도체 시장이 지속 성장한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그 수혜를 누리게 된다.

반대 시각도 있다. D램익스체인지는 "정부 지원을 받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2018년 말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

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40%를 중국 브랜드가 차지한다. LPDDR4를 양산하게 된다면 중국의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수입도 줄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도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브로드컴이 퀄컴과 NXP 합병을 마무리하면 삼성전자는 업계 3위로 추락하게 된다. 삼성의 1위 탈환은 메모리 실리온 버전의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미래 대비 불가능한 경영 환경

다른 사업들도 예년만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을 전년보다 1.4% 낮게 예측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6년 20.8%(3억대), 2017년 20.5%(3억 1500만대)를 기록하고 올해 19.2%(3억 5300만대)였던 TV 판매량도 지난해 4300만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목표량은 4000만대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변화에 삼성전자가 뒤처지고 있

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부터 루프페이, 하만 등 신성장 관련 기업을 활발히 인수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비운 이후로 대규모 M&A는 중단된 상태다.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도 좁아졌다. 크라이슬러그룹의 지주사 엑스르의 사외이사 자리를 빼앗겼고 중국 보아오포펄의 상임이사 자리도 내놓았다.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MSCI코리아ESG리더스지수' 종목에서도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약 10조원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정책까지 내놨다. 미래에 투자할 돈을 주주 달래기에 쓰고 있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총수 부재가 장기화되며 신사업에 대한 활기가 줄어들고 현 상황 유지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다. 이를 타개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삼성이 강력한 리더십을 회복해 빠른 속도로 신사업 전략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공기업, 정부지원 배제하고 자체신용평가 해보니

광물공, A1 vs b3 신용등급차 13단계... 공기업 개혁 시급

(국가담보등급) (자체등급)

광물공, 채권만기에 디폴트 위기 법정자본금 상향지원 법안 '부결'

LH, 빚 무려 120.6조 달했지만 국가 재무제표엔 반영 안돼

정부 소유의 부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해결하고, 환골탈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 자체신용도 평가(모기업 또는 정부 지원을 배제한 신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 등급과의 괴리가 컸다. 그만큼 신용도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의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파산 위기에 처했다. 오는 5월이면 5억달러어치의 해외채권 만기가 도래하는데도 갚을 능력이 없어 디폴트(부도) 위기에 몰린 것.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조원에 이르는 자본금을 다 까먹고도 껍데기만 남았다.

정치권은 지원에 냉담한 반응이다. 국회는 최근 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광물자원공사 지원 법안을 여당 주도로 부결시켰다.

공공기관 고위 임원 A씨는 "추가 지원이 없다면 파산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다"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광물자원공사 사태의 불똥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될지 우려한다. 정부의 지원이 끊긴다면 신용 리스크를 걱정해야 할 공기업이 적잖아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 거품과 준비가 덜된 고령화와 결합하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해외 자체신용도 ↓

9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공기업들의 자체신용 수준은 천차만별이나 최종 신용등급은 국가신용수준(Aa2)을 감안해 대부분 Aa2를 받고 있다.

무디스가 평가한 광물자원공사의 최종 신용등급은 'A1'이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두 단계 낮다. 자체신용등급(BCA: Baseline Credit Assessment)은 'b3'로 최종등급과 13 단계나 차이가 난다. 한국석유공사의 무디스 최종신용등급도 'Aa2'다. 하지만 자체신용등급은 11단계나 낮은 'b1'으로 평가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자체신용등급은 'b1'이다. 최종신용등급 'Aa2'와 11단계 차이를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등급차이도 10단계나 격차가 난다. 무디스는 평가한 토지주택공사의 최종등급은 'Aa2'이지만, 자체신용등급은 'ba3'로 낮게 본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신용등급은 'ba1'으로 정부의 지원이 없을때를 고려한 최종신용등급 'Aa2'와 8단계 격차가 난다.

무디스는 한국가스공사의 최종 신용등급과 자체신용등급을 각각 'Aa2'와 'baa3'로 평가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체 신용등급이 'baa2'로 최종신용등급 'Aa2'와 6단계 차이를 보인다.

KB투자증권 김수연 연구원은 "과거 LH공사의 유동성 이슈가 불거졌을때 신용스프레드가 자기등급 대비 약 25b

p까지 확대된바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단기적으로 해당 이벤트의 영향이 시장전반에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다만, 불거진 시장의 우려에 대해 초기상황 대처가 미흡하거나 지연될 경우 특수채를 대하는 투자자의 부담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상경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공기업의 외화조달,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가스·석유 공사들의 조달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 부채 경계 짓는다는 악재

공공기관 부채는 한국경제에 여전히 큰 짐이다. 중앙정부 소속 공기업의 부채는 2016년 350조 9000억원이었다. 지방 공기업 부채는 43조 6000억원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을 벌일 때마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듯 공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탓이다.

공공기관들은 '낙하산 사장'을 통해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보증자리 주택 건설사업을 밀어붙인 탓의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빚이 2016년 말 현재 120조 6000억원까지 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비를 대려고 8조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조 5800억원이던 수자원공사의 빚(지난해 6월 말 기준 부채비율 199.94%)은 지난 2016년 말 기준 13조 6388억원까지 불었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가격이 묶여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수조원씩 빚을 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런 부채는 국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역대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민영화

안이 나왔고, 김대중 정부 때는 상당수 민영화를 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전체 부채 규모는 줄었으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빚은 되레 늘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공공기관이 계속 만들어졌고, 인원도 늘어났다. 공공기관 관리에 실패한 셈이다. 노조의 반발도 있었지만, 정부 미련(공기업의 부채를 끌어다가 주요 사업을 벌이기 위한)이 컸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이클에서 부채와 물가를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는 것.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모습도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시장 한 전문가들은 "강남 불패로 대변되는 부동산 버블과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빨라진 고령화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정부는 38개 공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올해 173%에서 2021년엔 152%까지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481조 1000억원 수준인 부채 규모는 2021년엔 510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2년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성과와 과제

‘평창 참가’ 확정 불구 ‘비핵화’는 입장 차 커

북측 방문단 역대 최대규모 가능성 이산가족·개성공단 등 문제 남아

남과 북은 9일 판문점에서 25개월 만에 고위급회담을 갖고 '마라톤 회의'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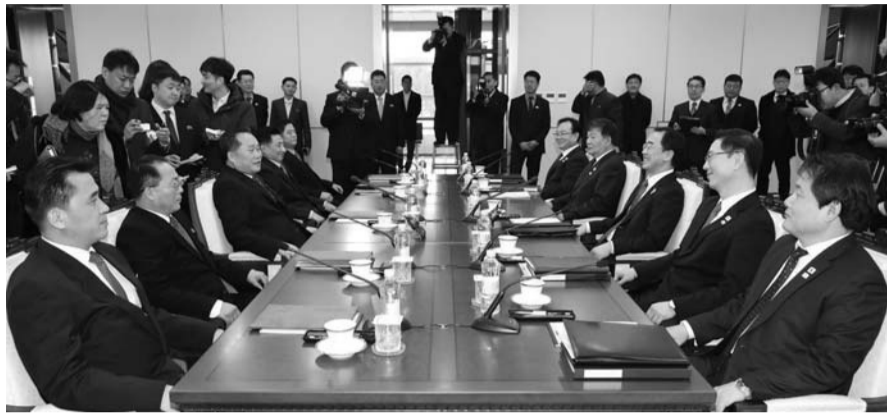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대표적이다. 향후 군사당국회담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해법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이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면서 향후 불거질 남북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우리측이 회담 초반에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최종 공동 보도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폐쇄된 지 2년째 되는 개성공단 문제도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남북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평창 올림픽 참가 실무 논의 급선무
평창 동계올림픽이 채 한 달도 남지 않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평화의집 회의장에서 전체회의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북한의 파견단을 위한 실무 준비가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뿐만 아니라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키로 하면서 이번 올림픽에서 북측 방문단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이 동계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선수단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평창 올림픽에서의 북측 방문 문제는

쉽게 풀렸지만 우리측이 제기한 '비핵화' 문제는 향후 남과 북이 협력을 걸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전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

발언 내용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리 위원장은 종결회의에서 서해 군 통신선을 지난 3일 개통했는데 '왜 이날 했다고 공개하느냐'며 불만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결국 종결회의는 40분 가깝게 이어졌다.

◆숨 가뻐던 25개월만의 만남

출발부터 좋았다. 25개월만의 만남이라고 보기에 너무 화기애애했다.

북한은 이날 만남 초반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발언을 하며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제안한 남측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측 단장으로 나온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첫 전체회의 초반 모두발언에서 "북남대화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비유해서 말하면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얼지도, 쉬지도 않고 또 그 강렬함에 의해 북남 고위급회담이라는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 위원장은 "남북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 해서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로 한결음, 한결음 내딛을 뜻을 전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랜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 회담이 시작됐지만, 정말 첫걸음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와 끈기를 갖고 회담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동시에 상충되긴 합니다만 '첫술에, 첫 술갈에 배부르랴'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갖고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은 판문점 남북 평화의집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5분까지 전체회의가,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 20분까지는 수석대표간 회담이 이어졌다. 또 점심식사를 마친 양측은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수석대표가 빠진 가운데 '4대4' 접촉을 이어갔다.

오후 늦어서도 남북은 '3대3' 접촉, 수석대표를 포함한 '3대3' 접촉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결과 도출에 힘썼다. 밤 8시엔 이날 회담 최종 결과 발표를 위한 종결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위안부 재협상 요구 안한다”

정부, 2015년 합의, 사실 부인 못해 日 피해자 위한 지속적 노력 기대

정부는 9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양국간의 공식합의였던 만큼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일본 스스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위안부 테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강 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할머니께서 한결같이 바라는건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모색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도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문제를 다뤄나가겠다"면서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려는 노력과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번 향후 처리 방향 발표와 관련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 왔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돼야 함을 명심했다. 또한 한일 양자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재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 자리매김 돼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韓-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文대통령-칼둔 UAE 행정총장 면담 군사 분야 협력·공조 가능성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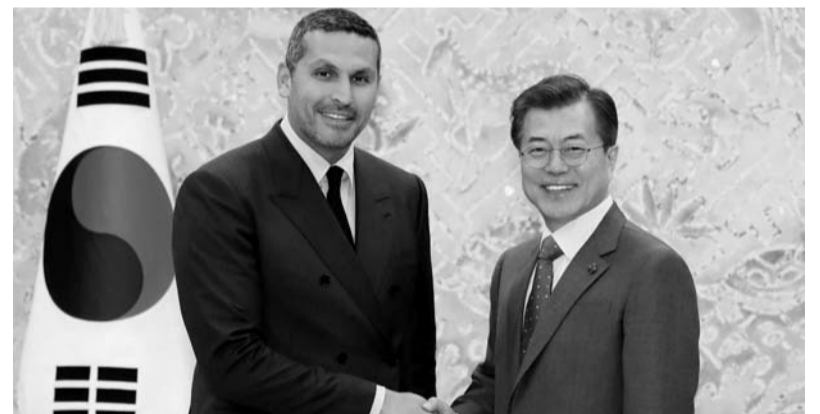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상호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에너지, 전자, 관광 등 경제·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및 공조 가능성도 열려있다.

1박2일 일정으로 지난 8일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총장은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간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칼둔 행정총장은 이날 별도로 가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선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적 공조를 진행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칼둔 총장을 접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한-UAE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칼둔 특사가 이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총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상해 (양국 관계를)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칼둔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그는 "UAE는 한국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대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이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고, 모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칼둔

청장과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며 지난 연말 임 실장의 UAE 방문 이후 진행된 양국간 사안에 대해 밀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한 달간 우리 언론에 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계기에 한국과 UAE가 얼마나 서로 중요한 친구인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UAE는 저희가 중동에서 맺고 있는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앞두고 당내 파열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 '청춘의 미래를 위한 부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9일 탈당과 함께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선언했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날 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역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 온 당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국민과 당원들, 남아 계시는 동료들, 특히 함께 뜻을 세워 오신 청년 여러분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어디에 있던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보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선(先) 보수통합' 후 중도로 나아가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생각이 다른 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컬링엔 [치밀하게 계산된] 순간이 있다

컬링 선수들이 신는
컬링 슈즈가
짜짜이인 이유, 아세요?

한쪽 발은
마찰력을 높이는 고무 소재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다른 쪽 발은
마찰력을 낮추는 소재로 만들어
빠르게 미끄러지도록 한다네요

스톤의 회전 방향, 각도와 속도, 부딪힘의 강도를
세세하게 계산하는 것은 물론,
신발 하나에까지도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는 컬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놀라운 순간들 그 안에
반도체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IT·자율車 시너지 뽐내러... 하만 대표 CES 깜짝 등장

5G-레디 TCU·디지털 콕핏 공개
자율주행 플랫폼 '드라이브라인'
센서·부품·소프트웨어 등 선택



디네시 팔리월 하만 대표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하만과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5G-레디 TCU, 디지털 콕핏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8'에서 하만의 협업 작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CES 2018에서 하만과 공동 개발한 '5G-레디 TCU(텔레매틱스 컨트롤 유닛)'를 비롯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콕핏', 자율주행 솔루션 '드라이브라인(DRVLINE)' 등을 선보이며, 하만의 협업 시너지를 본격화 했다.

삼성전자는 CES 2018 개막에 전날인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래 비전과 2018년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프레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하만 대표이사인 디네시 팔리월이 깜짝 등장했다. 그가 삼성전자의 프레스 콘퍼런스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뒤 본격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네시 팔리월 대표는 "삼성전자와 하만의 최고 역량이 모여져 소비자들은 집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지능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전장 업계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업계를 주

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5G-레디 TCU를 공개했다. TCU는 자동차를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무선 통신 기술이 적용된 핵심 장치를 말한다.

팔리월 대표는 "TCU에 5G가 적용되면 도로·차량·행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운행을 돕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업계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첨단 IT 기술과 하만의 전장 기술이 집목된 '디지털 콕핏'도 선보였다. 디지털 콕핏은 하만이 글로벌 완성차기업에 공급해오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삼성전자의 인터페이스 등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음성서비스 '빅스비'의 차량용 버전과 사물인터넷 기기를 구동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앱이 더해졌다.

또 운전자와 탑승자가 차량에서 음성 명령으로 에어컨과 오디오, 조명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집안의 사물인터넷 가전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팔리월 하만 대표는 "삼성전자와 하만의 최고 역량이 모여 소비자들은 집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지능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만의 CES 2018 전시장에서는 신개념 자율주행 솔루션 '드라이브라인' 플랫폼이 공개됐다. 드라이브라인 플랫폼은 자동차 업체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가 각자에 맞춰 자율주행에 중요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와 부품, 소프트웨어를 선택해 자동차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확장성을 지닌 모듈화된 자율주행 솔루션이다.

개방성과 확장성을 강점으로 하는 드라이브라인에는 삼성전자의 최신 AI(인공지능)·알고리즘 등의 기술과 부품이 적용됐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 기준 레벨 1에서 5가지의 단계 중 레벨 3에서 5가지의 자율주행 수준을 구현할 수도 있다.

드라이브라인에는 삼성전자와 하만이 공동개발한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전방카메라시스템을 적용해 차선기탈경고, 전방충돌경고, 보행자감지, 긴급자동차동과 같이 향후 적용될 미국의 신차평가프로그램 기준들을 충족시킨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코웨이, 똑똑한 '의류 솔루션' 공개

CES서 AI 공기청정기도 선배
애플·아마존 등과 협업도 강화

코웨이가 오는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8 CES'에 의류청정기 등 의류 토털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추가 공략에 들어갔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애플과 협업을 강화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소비자들을 손짓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답리닝 기술이 탑재된 '액티브 액션 공기청정기'에다, 사물인터넷(IoT)과 매트릭스가 만난 '스마트 베드 시스템'도 함께 출시해 방문객들로부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코웨이의 CES 참가는 올해가 세번째다.

코웨이는 에어 케어 기술력과 의류 관리기를 융합한 신개념 의류청정기인 '코웨이 FWSS(Fresh Wear Styling System)'를 CES에서 처음 내놓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코웨이 FWSS는 양복, 코트, 니트 등 매년 세탁하기 어려운 옷감의 의류를 ▲의류 집중 케어 ▲의류 공간 케어 기능으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일반 의류 관리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의류 공간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품 하단에 공기청정기를 탑재해 드레스 룸과 같은 의류를 보관하는 주변 공간까지 공기청정 및 제습 기능을 제공해 모든 옷을 365일 언제나 쾌적하

게 관리해준다. FWSS에 탑재된 공기청정필터는 의류 관리에 최적화된 4단계 필터 시스템으로 프리필터, 맞춤형 필터, 탈취필터, 해파필터로 구성된다.

코웨이는 지난해 아마존의 AI 음성인식 플랫폼인 알렉사를 활용한 북미향 공기청정기 '에어메가'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도 아마존의 IoT 기반 주문서비스인 'DRS(Dash Replenishment Service)'를 접목한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공개했다.

애플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애플 스마트 플랫폼인 홈킷을 연동한 공기청정기 '코웨이 타워'도 CES에 내놨다. 이 제품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자가 앱이나 아이폰 시리를 통해 공기청정기를 조작할 수 있다. 코웨이 타워는 이달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CES에서 추가로 내놓은 '코웨이 스마트 베드 시스템'은 사용자의 수면 패턴, 주변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컨트롤해주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이해선 코웨이 대표이사는 "CES에 3년 연속 참가해 고객들이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제품에 기술력과 혁신을 담아 삶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토털 라이프 케어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객 케어 역량 강화로 웰빙 가전의 미래와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웨이 모델들이 CES에서 최초 선보이는 '코웨이 의류청정기 FWSS(Fresh Wear Styling System)'를 소개하고 있다. /코웨이

"지능화 된 IoT... 앱 하나로 모든 기기 제어"

삼성, CES서 미래비전 소개
370여개 기기와 '스마트 싱스'

"삼성전자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히 기기간 연결성을 넘어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김현석 CE(소비자가전)부문장 사장은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8' 개막에 앞서 프레스 콘퍼런스 갖고, 이 같이 미래 비전과 2018년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다가올 사회의 핵심 트렌드를 '인공지능에 기반한 연결성'으로 정의하고, 삼성이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Home)-비즈니스(Business)-모빌리티(Mobility)라는 3가지 상황별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했다.

김 사장은 "삼성이 만들어 나갈 서비스를 위해 40여개의 파트너사 370여개의 기기가 연결돼 있는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전사적인 IoT 플랫폼 연동 작업을 진행했다"며, 3가지 주요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클라우드의 통합'으로 일상생활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부문장 김현석 사장이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8' 개막에 앞서 미래 비전과 2018년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기기간 연결성을 넘어 지능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Intelligence of Things'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에 필요한 다양한 제 3자 기기와 서비스를 스마트싱스와 연동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삼성 커넥트, 아틱을 스마트싱스 클라우드로 통합하고 하만의 전장용 플랫폼인 이그나이트까지 연동해 집 안의 가전제품에서 차 안의 오디오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

그러나 연동 방법이 복잡하거나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로 소비자가 사용상 어

려움을 겪지 않도록 앱의 통합으로 기기간 연결성이 확보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서비스는 AI 비서인 빅스비가 전면에 나서 수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자사의 전체 스마트기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또한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TV와 가전제품에도 기기별로 최적화된 보안의 녹스 기술을 적용해 안전한 IoT 환경 구현에 나선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SK텔레콤 직원이 5G 자율주행 콕핏 운전석에 앉아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체험하고 있다. /SK텔레콤

SKT-기아車, 5G 자율주행기술 선택

SK텔레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8'에서 기아자동차와 5G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과 기아자동차는 기술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체험 시나리오 ▲한국-미국 간 5G 망 활용한 실시간 영상 전송 시연 ▲5G 기반 차량-사물 간 통신

(V2X) 기술 등을 전시한다.

우선 양사는 관람객들이 차량 내에서 업무를 하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미래 자율주행 환경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5G 자율주행차 콘셉트의 콕핏을 설치했다. 콕핏은 관람객이 자동차 운전석의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한 모형이다. 관람객들은 운전석에 앉아 자율주행 차량의 인터페이스와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도 있다.

또, 양사는 콕핏에 앉은 관람객들이 서울 시내 5G 커넥티드카에서 촬영한 360도 영상을 'CES 2018'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 전송을 시연한다. 관람객들은 마치 서울 시내를 자율주행차로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 서울 을지로 5G 시험망을 해저 케이블로 확장해 한-미간 5G 전용 시험망을 구축했다. /김나연 기자 silkni@

5분 충전에 600km 달리는 미래차 ‘넥쏘’

현대차, 수소전기차 전격 공개... 글로벌 모빌리티 주도



‘10년 16만km’ 넥쏘 올 3월 시판
오염물질 배출않고 에너지 생산
현대차-오로라프로젝트 발표



현대차 환경기술센터장 이기상 전무, 현대디자인센터장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총괄담당 양웅철 부회장, 오로라 크리스 엄슨 CEO, 현대차 정희선 부회장(왼쪽부터)이 CES2018에 참석해 수소전기차 넥쏘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첨단 기술 경연장인 ‘CES 2018’에서 차세대 친환경 기술을 집약한 수소연료전지 전기차(FC EV·수소전기차) ‘넥쏘(NEXO)’를 공개했다. 또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로라와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개발하는 ‘현대차그룹-오로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대차는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넥쏘와 미래 자동차 시장의 혁신 기술인 자율주행의 비전을 선보였다.

◆‘현대차그룹-오로라 프로젝트’

현대차는 이번 CES를 통해 치열한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서 ‘게임 체인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양웅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CES 2018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부문에서 기술 개발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으며 현대차도 시류에 앞장서기 위해 지능형 안전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친환경차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인 오로라와 진행중인 자율주행 기술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현대차는 오로라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2021년까지 3년 내 업계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레벨 4(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스마트시티 내에

서 우선적으로 구현해 상용화한다는 ‘신 자율주행 상용화 로드맵’을 공개했다.

오로라는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총책임자였던 크리스 엄슨,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총괄 스티빙 앤더슨, 우버의 인식기술 개발 담당 드류 배그넬 등 전 세계 자율주행 선구자들이 창립해 업계의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

현대차와 오로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협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양

사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와 제어 기술을 공유하고 통합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도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 기술 집약 ‘넥쏘’는 어떤 차?

지난해 8월 국내 시장에 차량 외관만 소개되며 공급증을 자아냈던 넥쏘는 5분 충전만으로 수소전기차로서 세계 최고 수준인 6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고, 내연기관 차량과 맞먹는 ‘10년 16만km’의 내구성을 갖췄다.

‘넥쏘’는 덴마크의 섬 이름으로, 첨단 기술(High Tech)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고대 게르만어로는 ‘물의 정령(Water Spirit)’, 라틴어와 스페인어로는 ‘결합’을 뜻하는 단어로 산소와 수소가 합쳐져 물 이외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소차의 특성과 친환경적 특징을 강조했다.

이기상 현대차 환경기술센터장(전무)은 “넥쏘는 독자적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탑재된 현대차 최초의 수소전기전용차이자, ‘아이오닉’ 등을 통해 쌓아온 우수한 전기동력부품 기술력을 집대성한 기술적 플래그십(대표·주력)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현대차가 지난해 CES에서 공개한 3대 미래 모빌리티 비전인 ▲연결된 이동성 ▲이동의 자유로움 ▲친환경 이동성을

실제 차량에 구현한 ‘현대차의 미래’가 바로 ‘넥쏘’라는 설명이다.

넥쏘는 차세대 동력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레벨2’ 수준(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ADAS(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 갖췄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HDA)은 물론, 차선 변경 시 뒤·앞 상황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LFA),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시스템’ (RSPA) 등 첨단 안전·편의 시설도 탑재됐다. LFA는 시속 0~150km 속도에서 차로 중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며, RSPA는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도 주차·출차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넥쏘는 또 수소탱크에 따른 수소전기차의 적재·실내 공간 한계를 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일원화된 3개의 탱크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의 839L(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의 적재공간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넥쏘를 올해 3월 국내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가격은 아직 미정이나, 이날 발표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보조금을 받을 때 400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2020년 OLED 비중 4배 높일 것”



테스트 중인 새로운 응용제품
돌돌 말리는 ‘롤러블’ 첫 소개
POLED, 성장동력 육성 계획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이 8일(현지시간) ‘CES 2018’이 개최되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의 사업전략을 발표했다. /LG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사업 전환을 가속화해 현재 10% 내외의 OLED 비중을 2020년 40%까지 올리겠습니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미국 ‘CES 2018’을 앞두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 부회장은 “OLED TV는 판매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30여 만대 수준에서 지난해 170만대까지 증가했다”며 “2020년에는 650만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해 그는 “지난해 1분기 정점을 찍은 뒤 매출이 하락 중이고, 원·달러 환율 하락과 중국 기업들로 인해 LCD 패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힘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메인 시장인 65인치에 대해 효율적인 8.5세대 시스템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가격 경쟁도 해볼 만하다”고 자신했다.

LG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 TV시장에서 OLED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독보적인 시장 구축에 나기 위해 CES2018에서 65인치 UHD 해상도 롤러블 디스플레이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돌돌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완전히 다 폼을 경우 16대9 화면비의 65인치 TV가 된다. 1단계로 감으면 영화 감상에 최적인 21:9 화면 비가

되며, 한번 더 감으면 사진이나 시간, 날짜표기 등 생활 속 다양한 정보를 띄울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변신한다.

롤러블은 10만번 이상 구부렸다 폼다 하는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으며, 곡률(휘어지는 정도)은 50R(반지름이 50mm인 원이 휘어진 정도)이다. 무게는 기존 LCD TV 대비 절반 가량이다.

그는 “롤러블은 완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제품을 선보인 것은 OLED의 새로운 응용분야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용화까지는 고객사와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LG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시장에서 POLED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6세대 POLED라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규 라인도 적기에 양산하는 한편, 폴더블·AR·VR과 같은 차세대 기술도

미리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저우 8.5세대 등 신규 투자를 통해 생산량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정부의 중국 광저우 공장 건설 승인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당초 세웠던 2019년 하반기 가동 계획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장을 지을 때 지하를 파지 않고 바로 파일링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덜 소요되고 이미 정부 승인을 받기 전부터 기반공사가 진행됐다”며 “다만 인력 투입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전자가 전일 초대형 마이크로LED TV 출시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한 부회장은 생산비용이나 생산성의 한계가 있어 당장 상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마이크로LED는 LCD 설비로는 생산이 어려운 대형 사이즈의 경우 분명한 메리트가 있다”면서도 “한 두개는 (시제품으로) 내놓을 수 있겠지만 상용화 시점은 비용과 생산성에 달려 있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강인병 최고기술책임자(CTO) 부사장도 “마이크로LED TV를 UHD(초고화질)급으로 만들려면 약 2500만개의 LED를 박아야 한다”며 “1개당 1원이라고 해도 2500만원이고, 회로와 기관까지 포함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상상도 못할 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회장은 삼성측이 제기한 OLED TV의 번인(잔상) 문제에 대해서는 “LCD TV 매뉴얼을 보면 ‘장시간 보면 잔상이 생기니 너무 오래 보지 말라’는 안내가 있다”며 “(번인 문제는) 모든 TV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un@



LG전자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Mandalay Bay) 호텔에서 개최한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CTO 박일평 사장이 인공지능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AI ‘씽큐’ 더 나은 삶 위한 맞춤형 브랜드

LG전자 인공지능 브랜드 론칭
“생활 전반에 걸친 가치 제공”



“인공지능 브랜드 씽큐(ThinQ)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LG전자 박일평 CTO(최고기술책임자) 사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호텔에서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인공지능 전략을 밝혔다.

박 사장은 “최근 론칭한 글로벌 인공지능 브랜드 씽큐를 통해 생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LG전자 인공지능 브랜드 씽큐의 3가지 강점은 맞춤형 진화, 폭넓은 접점, 개방성”이라고 말했다.

씽큐는 ‘맞춤형 진화’를 지향하며, 소비자를 이해하면서 스스로 성장한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공부했다면, 이제는 제품이 사람을 학습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LG전자는 공간적인 단절 없이 통합적인 인공지능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피커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킬 예정이다.

LG전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픈 플랫폼, 오픈 파트너십, 오픈 커넥티비티

등 개방형 전략을 추진해 강력한 솔루션을 갖춘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연구소 등과 협력하기 위해 투자 펀드도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콧 허프만 구글 어시스턴트 개발 총책임자도 참석해 “LG전자는 세탁기, 냉장고, TV 등 가전 분야에서 강력한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며 “LG전자가 가진 다양한 제품들이 구글 어시스턴트와 만나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신개념 로봇 ‘클로이’가 시연 중 작동되지 않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데이비드 밴더웰 미국법인 마케팅담당 부사장은 초반 무대 위에서 클로이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며 음성인식 기능을 선보였다. 하지만 후반에는 세탁기 상태와 요리법 추천 등에서 클로이가 침묵으로 일관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LG측 관계자는 “홈 로봇이 와이파이(Wi-Fi) 기반으로 통신을 하는데 행사장에 약 1000명이 몰려 접속자가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창립 50주년' 포스코 정기임원인사

조직전문성·솔루션마케팅 강화

철강사업본부장에 정탁
포항제철소장에 오형수

포스코가 9일 정기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포스코는 통상 2월초 시행하던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시기를 약 한달여 앞당겨 조기에 조직을 안정화하고, 100년 기업으로서의 지속성장을 위해 조직전문성 및 솔루션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 세계 생산 및 판매 확대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철강솔루션마케팅실 산하에 '글로벌품질경영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글로벌 솔루션마케팅 강화를 위해 베트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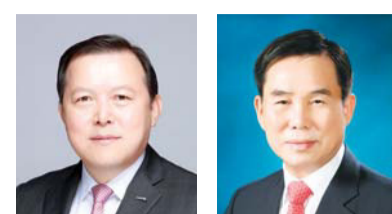


정탁 철강사업본부장 오형수 포항제철소장

중국에 '솔루션마케팅센터'를 각각 새롭게 만들 방침이다. 여기에 강건재열연마케팅실을 강건재마케팅실과 열연마케팅실로 분리해 포스맥 등 월드 프리미엄급 고급 강건재 시장 선점에 나선다. 임원 인사의 경우 정탁 철강사업전략실장과 오형수 장가항법인장이 부사장

으로 승진, 철강사업본부장과 포항제철소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성과에 기반한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다양성 제고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여성임원급 2명을 발탁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노하우로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명장 중에 처음으로 상무보가 탄생했다. 이번에 상무보로 승진한 손병락 명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77년 입사해 2015년 명장으로 선발됐으며 현장 전동기 기술분야의 1인자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포스코 사내이사와 주요 출자사대에 대한 인사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롯데 오늘 임원인사... 황각규 승진 귀추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 허수영 화학BU 사장

롯데그룹이 오는 10~11일 양일간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 신동빈 회장의 복심으로 그룹 내 2인자로 떠오른 황각규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르면 10일부터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33개 계열사는 10일, 롯데건설, 롯데상사, 대흥기획 등 9개 사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임원인사를 확정한다. 그간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는 연말에 진행했지만 지난해 신 회장의 재판 일정 등으로 연초로 미뤄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올해 임원인사가 큰 변화보다는 조직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부회장 승진이 무산된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사장)와 허수영 화학 사업부문(BU) 사장의 승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황 사장은 롯데케미칼로 입사한 뒤 1995년부터 그룹에서 신규 사업 및 M&

A, 해외사업을 담당했다. 지난해 초 조직 개편 후 경영혁신실장을 맡아왔으며 롯데지주 출범 이후 신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겸임하며 중국의 사드 보복과 재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최근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부회장 승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도 지난해 롯데그룹 내 화학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았던 만큼 승진 가능성은 높다. 롯데 관계자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각 계열사 이사회를 거친 후 2018 임원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황 사장의 승진 여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한화테크윈, 사전 협의 없이 본사 이전

한화테크윈

본사이전 앞두고 노사갈등 불거져
사측 강행에 우회적 정리하고 해석도



한화테크윈 창원 엔진부품 신공장 전경.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의 본사 이전을 두고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회사는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인 반면, 직원들은 급작스런 이전에 응하기 어려운 만큼 퇴사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9일 한화테크윈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본사 이전을 준비 중이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에 있는 본사를 오는 3월 경남에 위치한 창원2사업장으로 옮긴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2사업장은 항공기 엔진 등의 생산설비가 위치한 곳이다. 본사 이전에 대해 한화테크윈은 현장경영 강화 차원의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신현우 한화테크윈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통해 "경영진이 현장과의 밀접성을 높여 사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기 위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경영진의 강력한 현장지휘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확보해야 고객들이 요구하는 원가절감을 충족하고 해외 경쟁사와 경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물리적 한계가 있었지만, 엔진회사로서 영업·지원인력들이 제조현장을 알고 엔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1~2년 후 생산에 돌입하는 수주사업 특성상 성공을 위해서는 영업·지원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화테크윈 본사가 창원2사업장으로 이전하면 서울에 근무하는 한화테크윈 영업·지원 인력 120여명도 오는 3월 1일까지 거처를 옮겨야 한다. 하지만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통보와 촉박한 시일, 사측의 미진한 지원 등으로 한화테크윈 직원 상당수가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이전에 대해 한화테크윈의 한 직원은 "아이를 키우는 여성인력은 모두 퇴사하라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그는 "남편 직장이 서울에 있고 아이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2달여 남짓한 시간을 주고 창원으로 이사하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다"며 "가정이 파탄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 지냐"고 답답함을 털어냈다. 또 다른 직원은 "본사 이전을 추진한다면서 회사의 이주 지원방안으로 전세자금 1억원을 빌려주는 것이 전부"라며 "지금 사는 집을 뺄 시간이 부족하거나 사측이 제시한 지원금으로는 전셋집도 못 구한다"고 지적했다. 창원2사업장이 위치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일대 84㎡ 아파트 전세금은 모두 2억원이 넘는다. 다른 한화테크윈 직원은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전 후의 청사진을 제시

해달라는 질의가 나왔지만 사측은 이에 답하지 못했다"며 "임직원을 설득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못했고 이주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으면서 이주와 퇴사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주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회적인 정리하고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4년 12월 삼성그룹으로부터 삼성테크윈을 인수하며 100% 고용승계와 5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2014년 매각 당시 4324명이던 삼성테크윈 정규직 근로자는 2015년 9월 4255명으로 줄었고 회사 분할 전인 2017년 3월에는 4123명으로 감소했다. 2년여 만에 201명이 퇴사했다. 한화테크윈은 이에 대해 "본사 이전에 대해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조정 차원은 아니다. 현재 각 사업부별로 대표자를 선정해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측의 제안과 구성원들의 요구에 차이가 커서 아직 지원방안이 결정되진 않았다. 최대한 구성원들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며 "3월 1일까지 창원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세성 기자 sesung@

정부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 본격화

산자부, 선도프로젝트 위한 TF팀 구성
2022년까지 3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 중 주요 정책과제인 '5대 신산업 선도프로젝트' 추진이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종로구 대현사에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TF는 세부 이행전략 수립부터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선도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에 포함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으로 신산업 창출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성공시키고,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

터, 인공지능과 연계된 IoT 가전 기술을 개발하고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후발국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기술개발에 산업부 총예산의 약 30%에 이르는 91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TF는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반장으로 산업부 담당 국장을 비롯해 5개 분과로 구성된 산·학·연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는 20여명이 참여해 프로젝트별로 2022년의 목표와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연차별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 실증·상용화, 시장창출, 규제 정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구체적인 이행과제와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2018년은 무엇보다도 5대 신산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단순한 계획발표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산업 혁신성장의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TF와 분과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업종별 혁신성장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유영민 "한국의 희망, 사람중심 과학기술·ICT에 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신년인사회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혁신'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들이 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희망 대한민국, 국

민과 함께하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렸다. 신년인사회는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의 교류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ICT대연합) 공동주최로 매년 열린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자 과총 회장, 이계철 ICT대연합회 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통신 3사 사장 중에서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유일하게 참가했다. 박정호 SK텔레

콤 사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CES 2018' 일정으로 불참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날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교육부와 '한국형 나노디그리(가칭)' 사업협력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약 6400명의 과학기술계 인사·일반국민의 온라인 투표 결과가 반영돼 선정된 '2017 10대 과학기술 뉴스' 영상 상영 후 올해 과학기술계를 조망하는 '2018 세대 간 대화'가 진행됐다. 대화에는 유영민 장관을 비롯한 10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 참석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60대까지의 세대별 대표로 구성된 6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대 간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람중심의

과학기술과 ICT에 있다고 느꼈으며, 융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들의 세계적인 연구 개발 성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공룡시대 살아남기’ 신개념 게임 ‘듀랑고’ 넥슨의 도전

오는 25일 세계시장 정식 출시
가상 사회 조성하는 샌드박스형
탐험 위주 무과금 플레이 가능
실제 동물소리 담아 새로운 시도



정상원 넥슨 부사장이 '듀랑고' 게임 출시 일정을 알리고 있다. /넥슨

‘현대인이 공룡 시대에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넥슨이 이처럼 참신한 콘셉트의 신작 ‘야생의 땅:듀랑고’로 새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정상원 넥슨 부사장은 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5일 정식 출시하는 듀랑고는 경쟁 자체보다는 이용자 간의 협동과 탐험이 게임을 만들어 간다”며 “게임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모바일 게임 개발 방향에 중요한 의미를 던질 수도 있다는 의무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듀랑고는 넥슨이 올해 처음 내놓은 자체 지식재산권(IP) 게임이다. 넥슨의 자체 개발 타이틀인 ‘마비노기’ 등을 개발해 회사 대표 개발자로 부상한 이은석 디렉터가 이끄는 왓스튜디오가 최소 10년 이

상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5년 이상 공을 들였다. 정식 출시일은 오는 25일이다. 아시아지역을 벗어난 북미 등 글로벌 시장도 공략한다.

이은석 넥슨코리아 왓스튜디오 프로듀서는 “마비노기 영웅전 개발 이후 신작을 고민했고 아무도 만들지 않은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세상에 나온 N개의 게임에 하나를 더 하기보다는 0개의 게임을 1개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듀랑고는 기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MMORPG 등과는 맥을 달리 한다. 장비나 성장이 아니라 협동과 탐험을 위주로 삼는다. 이용자들이 건축가, 요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설, 요리, 농사 등 생활 콘텐츠로 환경을 개척하고 가상의 사회를 조성하는 샌드박스형 게임이다. 전투가 필수 요소가 아니며 최근 총사

움 등이 주가 되는 모바일 게임과는 달리 신선함을 전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질학·고생물학 박사과정 출신의 게임 디자이너가 투입됐다.

이용자들의 경쟁 심리를 부추겨 지나친 과금을 부과하게 하는 게임과 달리 듀랑고는 협력과 탐험을 위주로 해 무과금 자들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토록 했다. 노정환 부사장은 “게임에 과금을 해야만 하는 것은 지독한 경쟁 때문이지만 듀랑고는 편의성이나 감성적 만족도 부분을 과금토록 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소리를 입히기 위해 실제 동물들의 소리를 재료로 삼고 폴리 녹음도 시도했다. 색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TV 광고도 다르다. 기존 게임들의 경우 유명 연예인 모델이 광고를 했다면, 듀랑고는 게임에서 이용자가 겪는 독특한 방향에 주력해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만들었다.

넥슨은 듀랑고를 오래 가는 게임으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석 프로듀서는 “게임의 장기적인 수명을 해치는 비즈니스 모델은 원하지 않는

다”며 “비즈니스 모델은 편의성, 시간단축, 외형지장 위주로 돼 있다. 성능보다는 감성적인 만족감에 과금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발팀은 듀랑고 내 세계가 지속가능토록 설계했다.

최종 목표는 전세계의 이용자가 장벽이 없는 글로벌 단일 서버를 만드는 것이다. 노정환 넥슨 부사장은 “듀랑고로 인해 넥슨 브랜드가 북미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 알려져 모바일게임도 잘 만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넥슨은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해외 베타 테스트도 진행했다.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 152개국 유저들이 참여했다.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약 280만건에 달해 글로벌 시장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넥슨 측은 말했다.

듀랑고는 오는 25일 국내 안드로이드 OS 및 iOS를 통해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사전예약에 돌입했으며 이날 기준 사전예약자가 160만명을 넘어 올해 기대작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한국지엠 노사, 8개월만에 임금협상 마무리 “4차혁명 선도… 블록체인 경쟁 확보”

조합원 69.2% 찬성으로 교섭
기본급 5만원 인상 등 합의

한국지엠 노사가 8개월 만에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2월 30일 도출한 ‘2017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9일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총 중 1만2340명이 투표, 이중 8534명(찬성률 69.2%)이 찬성함에

로써 올해 임금 교섭이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5월 23일 첫 상견례를 마친 이후 25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25차 교섭을 통해 ▲기본급 5만원 인상 ▲격려금 600만원(지급시기: 2018년 2월 14일) ▲성과급 450만원(지급시기: 2018년 4월 6일) 등 임금 인상과 미래발전 전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낸 바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신속히 개시하고 조속한 협상과정을 통해 장기적 수익성 및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은 “2017년은 한국지엠에게 도전 과제가 많았던 한 해였고, 이러한 상황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민 기자 ysw@

김병철 현대페이 대표 신년사

김병철 현대페이 대표(사진)가 Hdac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9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다진 초석을 바탕으로 올해는 4차 산업 핵심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블록체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성장하는 블록체인 시장에 각국 정부와 기업이 진출하는 사례를 들며 “현대페이 역시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Hdac 플랫폼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대페이는 올해 중장기 목표를 ‘Hdac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 상용화’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 ▲블록체인 IoT 플랫폼 구축·서비스 ▲스마트 홈·스마트 팩토리용 IoT 블록체인 융합 솔루션 공급 ▲블록체인 기술 기



반H/W 제작·출시 ▲레그 테크(Reg Tech) 솔루션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IoT 기기가 복잡하게 연결되는 미래사회에서 블록체인

을 통해 사람과 기기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거래를 실현한다는 ‘Beyond the Human Pay(비욘드 더 휴먼 페이)’를 향상 되새겨야 한다”며 “항상 고객 입장에서 고민하고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를 할 때 진정한 고객 가치 중심의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 혁명에서 현대페이가 선구자이자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임직원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달라진 이통3사 멤버십 혜택… VIP·VVIP에 집중?

새해를 맞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3사의 멤버십 혜택이 달라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멤버십 혜택이 일반 등급 대신 VIP·VVIP 등에 집중돼 고객 차별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통통신 3사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멤버십 정책을 도입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지난해 선보인 선택형 더블혜택 멤버십 ‘내맘대로 플러스’의 주요 제휴처 4곳에 대해 연간 할인 가능 횟수를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018 내맘대로 플러스’를 선보였다.

새해를 맞아 리뉴얼된 ‘2018 내맘대로 플러스’는 메가박스, 아웃백, 롯데리아, 공차 등 주요 제휴처 4곳의 혜택을 매일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2회까지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연 6회)보다 2배 늘린 점이 특징이다.

2018 내맘대로 플러스를 신청한 T멤버십 VIP 등급 고객은 ‘VIP 전용 제휴처’ 3곳 중 1곳과 ‘VIP·골드 공통 제휴처’ 9곳 중 1곳 등 총 2곳을 골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드 등급 고객은 ‘VIP·골드 공통 제휴처’ 중 1곳을 선택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좋아하는 고객은 아웃백을 선택해 30% 할인을 받고, 할인 받은 금액만큼 T멤버십 두툼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T멤버십 두툼 포인트는 할인 받은 금



모델들이 SK텔레콤의 선택형 더블혜택 멤버십 ‘내맘대로 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액만큼 적립되며 11번가, 기프티콘몰, 레진코믹스, 에스24, 신라인터넷면세점 등 10개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KT도 올해 들어 신규 멤버십 혜택으로 글로벌 해외여행 플랫폼인 클룩(KLOOK), 신세계 면세점, 디착한가게 등 여행과 쇼핑 혜택과 ‘올레tv모바일’ 유료 주문형비디오(VOD) 20% 할인 혜택 등을 추가했다.

다만, 줄어든 혜택이 신설 혜택보다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U클라우드 멤버십’ 혜택, 해외 무료티켓, 현대 H몰 VIP조이스 1만원 할인쿠폰, ‘더블할인멤버십’ 혜택이 종료됐고, 이마트 제휴 혜택도 5000원 할인에서 2000원 할인으로 줄었다.

LG유플러스는 GS fresh에 5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되는 멤버십 혜택을

오픈했지만 멤버십 전체 등급에 제공하던 ‘나만의 룩’ 서비스를 VVIP와 VIP 등급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나만의 룩은 쇼핑, 영화, 푸드, 교통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한가지를 선택해 무료 영화 티켓 횟수도 절반으로 줄고 차감 포인트도 늘어났다. 가맹 편의점인 GS25 이용 횟수도 1일 2회에서 1회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VVIP·VIP 등급에 멤버십 혜택을 집중시켜 이용자들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멤버십은 제휴사 사정에 따라 혜택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며 “고객이 선호하는 제휴사 추가 발굴해 더 나은 혜택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美 MIT서 ‘창의학습 노하우’ 전수받는다

스마일게이트, 전략적 MOU 체결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미국 MIT와 국내 창의학습 환경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희망스튜디오와 MIT는 ▲스크래치 기반의 국내 어린이 청소년 맞춤형 창의 프로그램 개발 ▲희망스튜디오 창의공간 ‘퓨처 랩(FUTURE LAB)’을 활용한 스크래치 데이 워크숍 개최 ▲스크래치를 개발한 미첼 레스너 MIT교수의 퓨처 랩 명예 대사 위촉 및 창의에 대한 그의 철학을 담은 저서 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퓨처 랩에서 MIT국제과학기술협회(MISTI)가 과학, 기술, 공학, 기업이 정신 등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GTL(글로벌 티칭 랩스)’도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희망스튜디오는 이달 총 2회 GTL 프로그램을 연다. 12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창의 프로그램 SEED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MIT 학생들과 함께 로봇을 만들며 공학의 개념을 공유한다. 15~19일은 지구촌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달걀 떨어뜨리기를 통한 물리의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혁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는 “지난해 5월 MIT와 어린이 청소년 창의 발현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 이래, 어린이 청소년의 창의학습 환경 조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왔다”며 “이번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최고 대학인 MIT의 창의학습 노하우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의 프로그램과 접목해 미래세대 위한 창의환경 조성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에스오일 “5조 프로젝트 상반기 완공… 디지털 회사로”



오스만 알 감디 CEO 시무식서 밝혀
잔사유 고도화 상반기 완공 목표
신기술 활용·새로운 먹거리 주문

오스만 알 감디 에스오일 CEO가 2015년 시작한 4조8000억원 규모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올레핀 다운스트림 콤플렉스(RUC/ODC) 프로젝트를 상반기 내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9일 에스오일에 따르면 알 감디 CEO가 지난 8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알 감디 CEO는 ▲회사 핵심가치인 EPCS(최고, 열정, 정도, 협력, 나눔) 내재



에스오일 시무식에서 오스만 알 감디 CEO가 발표하고 있다.

/에스오일

화와 실천 ▲RUC/ODC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공과 안정적 가동 ▲안전운전과 운영 안정성 강화 및 빅 데이터 등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 강

화 ▲비전 2025 달성 및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새해 4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알 감디 CEO는 “RUC/ODC 프로젝트는 올해 4월 기적적 완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지원조직 또한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1%의 세밀한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UC는 원유에서 휘발유와 가스를 추출한 뒤 남은 찌꺼기에서 프로필렌과 휘발유를 추가로 생산하는 시설이다. ODC는 RUC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을 재료로 산업용 플라스틱,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게 된다. 에스오일의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시행된 단일 플랜트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에스오일은 올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빅데이터 팀을 신설했다. 올해는 생산, 안전, 마케팅, 물류 등 경영활동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가치 창출

방안을 찾아 나설 방침이다.

알 감디 CEO는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 감디 CEO는 RUC/ODC 프로젝트 이후를 대비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노력 강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비전 2025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올해에는 이런 투자 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팀리더와 회사의 젊은 세대들이 비전 2025 달성 이후의 모습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잘나가는 수입차 올해도 파죽지세?

지난해 수입차 전년비 3.5% 성장
벤츠, 2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
도요타 등 일본차 점유율도 증가



Mercedes-Benz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가 전년 대비 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 신규등록된 수입차는 23만3088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연간 22만5279대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는 2년 연속 국내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다. 단일 메이커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연간 6만8861대를 판매했다. 2016년 판매량(5만6343대)보다 22.2% 늘었다. 시장 점유율은 29.54%였다. 2위는 BMW가 차지했다. 전년 대비 23% 증가한 5만9624대를 팔았다.

1, 2위를 차지한 독일 브랜드에 이어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디젤게이트로 판매량이 감소한 아우디 폴크스바겐의 빈자리를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일본차가 꿰차면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렉서스와 도요타는 각각 1만2603대, 1만1698대를 판매하며 나란히 3, 4위를 차지했다. 혼다는 1만299대를 팔아

7위에 올랐다. 혼다는 2008년 이후 9년만에 1만대 클럽에 복귀했다. 닛산은 6285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일본차들의 판매가 늘면서 시장 점유율도 20%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차는 4만3582대가 판매되며 점유율 18.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15.7%에서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일본차 중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렉서스 ES300h다. ES300h는 지난해 7627대가 판매되며 BMW 520d에 이어 베스트셀링카 2위에 올랐다.

도요타코리아는 올해도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초부터 지난해 역대 최다 판매를 기념해 1월 한 달간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도요타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는 도요타 1만1700여 대, 렉서스 1만2500여 대를 합쳐 2만40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는 (이보다)10% 늘어난 2만7000여 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료별로는 디젤 차량(10만9929대)이 가솔린 차량(10만148대)보다 많이 팔렸다. 하지만 증감률을 보면 디젤 차량 판매량은 전년 대비 16.9% 감소했고, 가솔린 차량은 31.3% 증가했다. /양성운 기자



쌍용차가 새롭게 선보인 렉스턴 스포츠 앞에서 최중식 대표이사와 홍봉석 노조위원장(사진 가운데 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베일벗은 야심작 ‘렉스턴’… 연 3만대 목표

‘렉스턴 스포츠’ 신차 발표회
활용성·안전성 갖춘 신모델
티볼리 등과 판매성장 기대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가 올해 야심작 렉스턴 스포츠 공개와 함께 연간 판매 목표도 공개했다.

최중식 쌍용차 대표이사 사장은 9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중형 SUV ‘렉스턴 스포츠’ 신차 발표회장에서 “지난해 쌍용차는 내수시장에서 10만6000여대를 판매했다”며 “올해는 렉스턴 스포츠와 함께 티볼리, G4렉스턴, 코란도의 판매 성장을 기대하며 11만대를 판매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날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

를 출시하면서 월 2500대, 연 3만대 목표치를 내세웠다.

새롭게 선보인 렉스턴 스포츠는 G4 렉스턴의 플래그십 SUV 혈통을 계승했으며, 더 대담하고 강인한 스타일을 가진 ‘오픈형 렉스턴’으로 재 탄생한 모델이다.

쌍용차만의 쿼드프레임과 4트로닉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온·오프로드 주행성능과 월등한 견인능력은 물론 오픈형 데크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공간 활용성을 통해 개성 넘치고 다이내믹

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선사한다.

SUV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체형 위주의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아웃도어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대 규모인 중형 SUV 시장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활용성과 안전성, 차별화된 스타일을 갖춘 참신한 신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왔다.

렉스턴 스포츠는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차량가격의 10%) 등 최고의 경제성을 갖췄으며, 판매 가격은 트림별로 ▲와일드 2320만원 ▲어드벤처 2586만원 ▲프레스티지 2722만원 ▲노블레스 3058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더 또렷하게’… TV해상도급 블랙박스

파인디지털 ‘파인뷰 X1000 α’



파인디지털이 해상도 기능을 강화한 파인뷰 X1000 α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파인뷰 X1000 α는 슈퍼 풀 HD(2304×1296)의 초고화질을 구현해 촬영시 주변 상황을 더 또렷하게 담아낼 수 있다. 기존 풀 HD보다 1.2배 뛰어난 슈퍼 풀 HD 이미지 센서는 현장감 있는 녹화도 가능하다. 밝기가 자동 조절되는 오토 나이트비전도 적용돼 제품 스스로 최적의 화질을 찾아 낮에는 선명하게, 밤에는 밝게 녹화된다.

또 고화질 TV에 사용되는 IPS 패널을 장착한 4인치 LCD(800×480)는 넓은 시야각과 빠른 사물 인지를 돕는다. 주변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LCD 밝기가 조정되는 등 운전자 편의에 집중된 기능을 선보

인다. 파인뷰 X1000 α는 ‘스마트파인뷰’ 앱을 다운 받으면 스마트폰 연동까지 가능해 전/후방 녹화영상을 재생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파인뷰 X1000 α(32GB)는 블랙 1종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43만9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인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현재 기자 ihj@

융자+투자 ‘중소 성장공유형 대출’ 600억 지원

중기부-중진공

대출금액 지난해보다 50% 늘려
민간 투자조합 미투자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들을 위해 융자와 투자를 합친 ‘성장공유형 대출’이 올해에도 본격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성장공유형 대출을 지난해보다 50% 늘려 올해 6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본격 접수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중 지원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기업공개(IPO)할 가능성이 있을 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이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려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IPO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고,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7년(거치기간 4년 포함)이며,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인수한도 45억원이다.

특히 업력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이 대

상이 되는 미래가치연동형은 표면금리를 50%(0.25%) 낮추고, 기업가치 산정을 전환사채(CB) 인수 시점에선 생략하고 추후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평가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해 초기 자금이 시급한 창업초기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진공 허석영 융합금융처장은 “올해엔 성장공유형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업에 IR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IPO교육 등 다양한 후속서비스를 통해 지원기업의 후속투자 및 기업공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비은행·비이자 확대... '증권맨' 경험 살려 DNA 바꾼다

2018 따뜻한 금융 행복한 한국

6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복합점포' CIB센터 확대 오픈
투자금융으로 업무영역 확장**

**BNK백년대계 위원회 출범으로
공정·투명성 높이고 관행 개선**



BNK금융그룹은 지난달 21일 부산은행 본점 20층 회의실에서 'BNK백년대계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오른쪽)과 'BNK백년대계 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지주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금융권의 '개띠 만형'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46년생)의 경영전략이 눈길을 끈다. 김 회장은 올해 비은행·비이자 부문을 강화해 그룹의 수익을 다변화하고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백년대계 위원회'를 통해 낡은 관행을 손보고 인재를 개발하는 등 건강한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비은행·비이자 강화...증권맨 역량 나오나

김지완 회장은 올해 경영방침을 '그레이트 하모니 2018, BNK 신 경영플랫폼 구축'으로 정하고 지주사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가 '원(Oone) 컴퍼니' 이상의 대화합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경영플랫폼은 비은행·비이자 부문 강화를 통해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은행과 이자수의 중심인 과거의 모델을 넘어서 비은행과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금융그룹의 시너지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6대 전략과제로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WM), 디지털, 글로벌 등 핵심사업 그룹 시너지 극대화 ▲그룹 디지털 역량 강화 ▲수익성, 건전성 중심의 내실경영 ▲그룹 경영 효율성 극대화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기업문화 재정립 ▲사회적 책임경영 적극 실천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BNK금융은 그룹의 수익이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BNK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 4863억원 가운데 은행업 비중(4850억원)이 99.7%에 달한다. 이는 신한과 KB 등 시중은행을 최대 계열사로 가진 금융지주의 은행 수익 비중이 60%대인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편중된 수치다. 지방금융지주인 JB금융의 3분기 은행업 비중(81.1%), DGB금융(97.8%)보다도 높다. 누적 순수수익이익도 3분기 기준 2015년 1531억

원, 2016년 1329억원, 2017년 1301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40년 이상 '증권맨' 경험을 바탕으로 비은행·비이자의 부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부국증권, 현대증권(현 KB증권), 하나대투증권(현 하나금융투자) 등에서 14년이나 사장직을 수행할 정도로 경영능력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그는 현대증권 사장 시절 자기자본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경험이 있어 BNK에서도 비은행 계열사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그는 취임 후 조직개편에서 은행 중심의 투자금융부문을 기업투자금융(CIB)으로 확대했다. 최근엔 부산 부전동 BNK투자증권 본사에 은행과 캐피탈, 증권사를 모은 복합점포인 '부울경 CIB 센터'를 열어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등 투자금융으로 업무영역을 넓혔다.

◆조직안정 넘어 '건강한 문화' 조성도

김 회장은 지난해 BNK금융그룹의 혼란을 수습할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인 만큼, 올해 조직안정과 계열사 화합 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김 회장은 지난달 21일 'BNK백년대계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1년간 BNK금융그룹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내 낡은 관행을 개선해 백년대계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는 경영을 위해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백년대계 위원회를 만들어 경영 공정성·투명성을 높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원회는 김지완 회장과 허하 부산대 명예교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위원들을 대학교수와 업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투명성·미래비즈니스·글로벌·디지털·해양금융발전)로 꾸렸다.

자유로운 토론과 인재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제1회 BNK 미래정책토론회'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룹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고 그룹 경영방향과 미래 먹거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조직 내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룹 경영방향에 대한 임직원 공감대를 형성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룹인재개발원을 신설하고 해외 MBA 연수과정 도입, 지식마일리지 제도 시행과 함께 건강마일리지 제도 시행, 금연펀드 조성 등 건강한 기업문화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금감원 "변액보험, 동영상으로 이해하세요"

**보험연수원과 동영상 제작·게시
불안전판매 방지 등 민원 감소할 듯**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연수원과 공동으로 '변액보험 길라잡이' 동영상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최저 보증금에 가입하면 보험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국민 약 6명 당 1건을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길라잡이' 동영상은 핵심설명과 단계별과정 영상으로 구성했다.

핵심설명에는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만을 선별해 안내했다.

단계별과정은 변액보험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질문사항을 선택해 풀이(Q&A)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변액보험 주요 내용을 이해, 가입, 관리단계로 구분해 각 질문별로 유의 사항 등 세부 정보를 안내한다.

동영상은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FINE), 보험다모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잡한 변액보험상품의 장·단점 및 특징, 상품 내용 및 관리 방법 등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소개해 불안전판매 방지와 관련 민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성미 기자 smahn1@

저녁 7시까지 영업 '야간점포' 운영

BNK부산銀 '서면롯데1번가'지점

BNK부산은행은 서면 복개천 인근 아르나호텔 2층에 위치한 '서면롯데1번가' 지점을 저녁 7시까지 문을 여는 야간점포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면롯데1번가 지점은 직원들이 2교대로 근무하며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차근무 점포로 지역은행으로서는 부산은행이 최초로 시행한다.

이 지점이 위치한 서면 복개천 일대는 야간에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밀집한 부산의 대표적인 중심 상업 지역이다.

야간점포 시범 운영을 통해 평소 낮 시간 은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향후 고객들의 니즈와 고객 특성, 영업점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해 야간점포를 점진적으로 확



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NK부산은행 방성빈 경영기획본부장은 "근무 시간 중 은행 방문이 어려워 조퇴를 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야간점포를 운영하게 됐다"며 "고객 중심의 사고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영업점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하이로보' 3만명 가입·4000억 돌파

KEB하나은행, 출시 6개월 성과

KEB하나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로보(HAI Robo)'가 출시 6개월 만에 가입 손님 3만명, 가입 금액 4000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체험 손님과 가입 펀드계좌도 각각 10만명, 12만좌를 넘었다.

이는 하이로보가 친절한 설명이 제공되면서도 포트폴리오 설계부터 상품 가입까지 10분 이내로 완결 가능하고,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손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입 후 24시간 제공되는 'My 자산진단' 보고서와 펀드몰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제공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이로보의 '자산배분 알파 알고리즘'은 지난 연말 금융위원회 주관 제2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에서 알고리즘 운용 심사와 시스템 안정성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KEB하나은행 개인영업그룹 장경훈 부행장은 "하이로보가 손님에게 사랑받



는 이유는 테스트베드에서 검증된 알고리즘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휴먼테크를 바탕으로 손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한 결과이다"며 "1분기에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 '하이로보 시즌2'를 론칭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손님이 행복해지고 손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서 국내 디지털 자산관리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전세대출금리 0.08%p 상승 주택금융공사, 최저 2.96%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해 12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비담목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 제외)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3.04%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96%였다. 이어 KEB하나은행 2.98%, 우리은행 3.01% 등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한부모·조손 등 우대가구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봉준 기자 b35sea@

KB국민은행, 집·직장까지 외화 배달

다음달 말까지 환전 이벤트

KB국민은행은 'KB-포스트(POST) 외화 배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클릭 한 번이면~ 환전한 외화를 집(직장)에서 받는다!' 환전 이벤트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외화 배달서비스는 국민은행 모바일뱅킹이나 스마트폰 간편환전 서비스를 이용해 환전을 신청하면 외화실물을 원하는 날짜와 장소로 우체국 우편서비스를 통해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벤트 기간 동안 외화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금액에 관계없이 배달 수수료가 면제된다. 환전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환율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추첨을 통해 총 200명의 고객에게

모바일커피 상품권을 지급하며, 신청고객 모두에게는 면세점, 휴대용 와이파이 할인권 등 쿠폰복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가능 지역은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분당구 지역이다. 배달 가능 통화는 미국달러, 일본엔화, 유로화, 중국위안화, 태국바트화, 홍콩달러인 총 6개 통화로, 미국달러 환전 기준으로 최저 4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액 이하까지 이용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환전을 위해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은행 방문이 어려워 비싼 환율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환전을 하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지역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다양한 고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IPO 잣대는 '미래성장가치'... 1월 절반이 '특례 상장'

적자 기업도 성장성 증명엔 가능
테슬라 상장 풋백옵션 완화도
기술특례 상장기업엔 자금지원
카페24 공모규모 5000억 넘어

〈연도별 기술특례상장 현황〉

연도	상장기업수	총공모금액	바이오평균시총
05	2	50.4	134.3
06	1	22.7	97.5
09	3	40.9	59.8
11	3	15.5	40.2
13	4	60.9	90.3
14	1	23.4	152.4
15	10	183.1	120.4
16	8	296.2	227.4
17	3	45.2	97.3

자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 매출의 10분의 1에 불과한 바이오기업 '셀트리온'.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시가총액은 최근 현대차, POSCO를 뛰어 넘었다.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가능성을 무기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정부가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코스닥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미래성장가치'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달에만 3개 기업이 특례 상장을 추진한다.

◆정부 "상장제도는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적자를 낸 기업도 성장성

이 증명되면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거래소의 테슬라(Tesla) 요건 신설을 통해서다. 지난 2005년부터 '기술평가 특례상장'이란 제도를 통해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지만 이는 바이오 업종에만 혜택이 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테슬라 상장, 상장 주선인 추천 등 특례 요건을 확대해 상장

의 문턱을 낮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밝힌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상장 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아울러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테슬라 상장의 풋백옵션 완화도 약속했다. 테슬라 상장 요건 중 상장 후 3개월

간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현 주가의 90% 수준으로 일반투자자가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주관 증권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풋백옵션을 공모가의 90%에서 80%로 낮추고, 행사 기간을 상장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의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1월 기업공개(IPO), 절반이 특례 상장 기업

이달에만 3개 기업이 특례 상장을 위해 청약에 돌입한다.

특히 국내 1호 테슬라 상장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카페24'가 청약을 시작한다. 카페24는 2016년 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몰 솔루션 기업이자 플랫폼 사업자로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성장성을 인정 받고 있다.

공모규모도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카페24의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

무리되면 테슬라 상장에 따라나서는 벤처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링크제니스, 엔지켐생명과학 역시 이달 중순부터 공모주 청약에 돌입한다. 두 기업 모두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다. 링크제니스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류마티스관절염, 천식 치료제 등 8가지 적응증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IB 관계자는 "1월에 청약을 진행하는 6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특례 상장 기업이다"면서 "앞으로 기업의 주가 수준은 현재 매출액이 아닌 미래 성장 가능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9일 기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35조8799억원으로 현대차(33조5922억원), POSCO(32조9130억원)를 웃돌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이 이뤄지면 단숨에 시총 3위에 자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저비용·고효율 '소형점포'로 전략 변경

〉〉 1면 '로봇행원·소형점포...'서 계속

그러나 일부 은행에선 점포 폐쇄보다는 '소형 점포' 신설로 전략을 바꿨다. 인력·임대료 등 점포의 규모를 줄여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매 금융, 관계형 금융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방은행에서 수도권 진출 시 활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지방은행들은 지난 2015년 금융 당국이 영업권을 경기도까지 확대하면서 수도권 진출에 속도를 냈다. 수도권에 진출한 지방은행들은 점포의 상주 직원을 4~6명으로 줄이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 2층 이상에 소형 점포를 열고 저비용·고효율을 실현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소형점포를 57개까지 확대했다.

이에 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 등 6개 지방은행의 점포 수는 2015년 9월 말 962개에서 2016년 9월 말 972개로 오

히려 10개 늘었다. 올해는 Sh수협은행도 '소매(리테일)금융'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소매중심 채널전략에 나선다.

수익성·접근성 등에 따라 전 영업점을 재배치하는 동시에 아파트 및 상업지구 등 소형 점포를 설치해 수신자금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허브앤스poke(Hub & spoke)' 방식으로 기업여신이나 자산 관리는 허브(거점) 영업점으로 넘기고 스킵(소형)점포에선 리테일 영업만 한다는 취지다.

안영배 이사는 "은행권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등의 급속하고도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비대면 거래 확대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적요인의 도입 시 실업과 전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삼성증권 해외주식 매매 고객 환율우대 혜택

삼성증권은 100만원 이상 외화를 매수하고, 환전한 금액 중 50% 이상 온라인 해외주식을 매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2018 바이 글로벌(Buy Global) 환전 빅세일' 이벤트를 2월 말까지 진행한다.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MTS에서 이벤트를 신청한 후 이벤트 기간 중 누적으로 100만원 이상 외화를 매수하고,

매수한 금액의 50% 이상 해외주식을 온라인으로 매매하면 된다.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중국 위안(CNY), 홍콩 달러(HKD), 유로화(EUR)는 환전수수료의 85%를, 대만 달러(TWD)와 베트남 동(VND)은 환전 수수료의 7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김문호 기자〉

한국투자증권 '리자드 ELS' 60억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1일까지 HSCEI(홍콩H지수), 니케이225, 유로스타크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UE ELS 9739 회 리자드 스텝다운형'을 총 60억 한도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리자드 ELS'란 도마뱀(Lizard)이 위

기 시 꼬리를 자르고 탈출하는 것처럼 ELS가 조기에 상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더라도 중도에 상품을 상환할 수 있는 조건(리자드 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말한다. 'TRUE ELS 9739회'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으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95%(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24개월, 30개월, 80%(만기) 이상이면 연 6.2%로 수익 상환된다.

〈김문호 기자〉

"매출보단 수익성" 영업이익률 19% 달성

| IPO 기자간담회 |

워터스포츠웨어 전문기업 '배럴'

래쉬가드 수요, 수영복 시장 위험 수요예측 후 내달 코스닥시장 상장

워터스포츠웨어 및 용품 전문기업 배럴이 내달 초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배럴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수요예측을 거쳐 22, 23일 청약을 실시하고 내달 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설립된 배럴은 설립 2년 만에 국내 래쉬가드(Rashguard)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국내 워터스포츠웨어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래쉬가드는 햇빛 노출에 의한 화상이나 찰과상에 의한 발진(rash)으로부터 피부를 보호(guard)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성 워터스포츠웨어다.

이상훈 배럴 대표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워터스포츠가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이 변화의 경계선에 있다는 점에서 국내 물놀이



서종환 배럴 공동대표. /배럴

인구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래쉬가드의 수요는 기존 수영복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G마켓이 906명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여성 수영복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래쉬가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원피스 수영복(23%)보다 선호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실제 래쉬가드의 인지도 및 수요 증

가는 배럴 매출의 고속성장을 가져왔다. 배럴의 매출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155.7%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305억원)은 이미 2016년 전체 매출(242억원)을 초과달성한 상태다.

배럴의 영업전략은 매출보다는 수익성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실제 2016년 영업이익률은 18.8%로 의류업계 평균 영업이익(7.0%)을 크게 웃돈다.

이 대표는 "배럴은 위탁대리점이 전혀 없다"며 "매출의 58%가 백화점과 면세점에 있는 직영매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매출의 26%가 자사 온라인 몰에서 발생한다"며 "자사몰에서 20%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의류 브랜드는 국내에 없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배럴은 높아진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국 및 동남아 진출에 첫 발을 뒀다.

향후 브랜드와 제품의 카테고리를 확장해 사업 구조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8000원~9500원으로 총 171만주를 공모한다. 내달 1일 상장예정인 배럴의 대표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SNS로 투자정보 공유 '쌈'... "슈퍼 그웨잇"

하나금융투자, 신개념 오픈증권 출시

하나금융투자는 정보교류와 소통기능, 편의성을 두루 갖춘 신개념 오픈 증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채널인 '쌈(SAM·Show Stock Advise Me)'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쌈(SSAM)'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투자정보가 무료로 제공되며, 매매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나금융투자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인 1Q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인 1Q



HTS 사용자도 SNS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양방향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김문호 기자 kmh@〉

또한 커뮤니티 기능이 탁월하다. 언제든지 계좌 관리직원과 상담을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종목의 채팅방에 참여하여 사람들과 자유롭게 정보교류도 가능하여 정보 습득이 용이해졌다.

포진해 있는 여러 금융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파트너가 되어 국내외 주식과 금융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개한다.

조대환 하나금융투자 e-Business실장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발맞추어 손님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실 사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했다"며, "손님의 니즈에 충실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금융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새학기 준비 1순위 책가방... 패션업계의 '경량화' 경쟁

아이들 위해 소재·기능성 집중 착용감·안정성 더한 제품 잇따라

패션업계가 새 학기를 앞두고 책가방 쇼핑에 나선 엄마들에게 '경량화 책가방'으로 유혹하고 있다. 이번 새 학기 책가방 트렌드는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 소재, 기능성에 집중해 가방의 무게를 최대한 줄인 것이 특징이다.

9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빈폴키즈와 헤지스키즈, 신세계톰보이, 힐라 등 국내 패션 브랜드가 소재와 기능성에 집중하며 가방 제품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기획해 내놓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빈폴키즈가 내놓은 책가방은 무게가 600g 수준이다. 등판 에어 메쉬와 U자형 어깨끈, 체스트 벨트 등으로 착용감을 대폭 높였다.

또 가방 내부를 신축성이 우수한 엘라 스틱 밴드로 처리해 무거운 책이나 물건을 등에 고정해 내용물이 아래로 처지는 걸 방지하는 등 무게중심을 높여 착용감을 극대화했다. 빈폴키즈는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사업만 전개하게 되면서 이번



힐라 키즈 신학기 백팩 '치오'(왼쪽)와 뉴발란스 키즈 백팩 이미지.

제품도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출시했다. 윤성호 빈폴키즈 팀장은 "온라인 키즈 시장이 성장하는 것과 발맞춰 고품질과 가성비를 동시에 갖춘 빈폴키즈의 내년도 신학기 책가방을 선보이게 됐다"며 "처음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하

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담아 디자인과 품질에 특별히 신경 썼다"고 말했다.

헤지스 키즈와 닥스 키즈도 신학기 책가방을 선보였다. 이들 제품은 안정성에 가벼움을 더했다. 나일론 100% 소재의 겹감을 사용해 초경량으로 만들어져 성



/힐라·이랜드월드

장고 아이들의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제작됐다.

힐라 키즈는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소재를 포함한 기능성도 강화했다. 나일론 소재의 겹감을 사용해 가방 무게를 최소화했으며

어깨끈의 쿠셔닝을 강화해 가방 착용 시 아이들의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제작했다.

가슴 벨트와 11자형 패턴을 적용해 가방 무게를 분산, 아이들이 가방을 착용할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또 3M 재귀반사 테이프를 사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까지 더했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나일론 원단을 키즈 백팩에 사용해 제품 무게를 낮췄다. 또 등에 딱이 차지 않도록 흡습속건이 뛰어난 원단을 메쉬 등판에 적용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 가슴벨트는 체형에 맞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 어린이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 변형 가능하다.

이랜드월드가 전개하는 뉴발란스 키즈는 이번 새학기 책가방 무게를 500g~550g 까지 낮춰 아이들의 어깨 부담을 최소화 했다. 가방 측면에는 보온·보냉이 가능한 물병 포켓이 따로 있어 가방 내부가 젖을 염려가 없으며 3M 반사원단을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위메프 "5060세대 이커머스 '큰 손'으로"

전체매출 비중 지속적으로 증가세 시니어 위한 '텔레마트' 시범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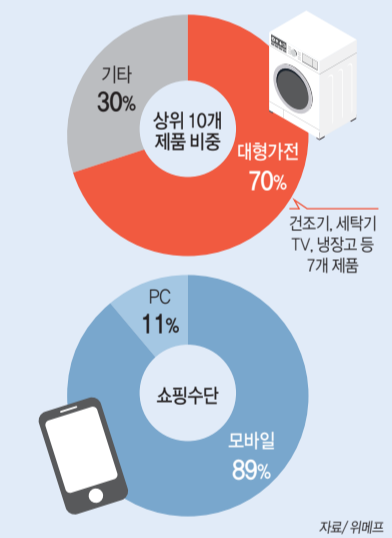
50대 이상 시니어 소비자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시장의 큰 손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

위메프는 '50대 이상 고객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구매액이 2015년보다 78% 증가, 전체 고객의 1인 평균 구매액 증가율(42%)을 크게 웃돌았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0대 이상 구매고객의 전체 매출도 전년 대비 65.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위메프 전체 매출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5%에서 2017년 6.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위메프는 50대 이상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화 안내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메신저나 문자로 'MD 추천 상품 카탈로그'를 발송하

위메프 5060 이용자 구매 트렌드



는 '위메프 텔레마트'를 시범 운영 중이다.

50대 이상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50대 이상 거래액 기준 상위 10개 제품 가운데 7개가 건조기,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으로 꼽혔다. 2016년 상위 10개 제품 중 가전제품은 2개(세탁기·TV)에 불과했고 2015년에는 한 개도 없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가전제품 중에서도 특히 대형가전은 고가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대표적 고관여 상품"이라며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연령층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0대 이상 고객들이 쇼핑 수단으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 또한 눈에 띈다. 지난해 위메프 50대 이상 고객 가운데 89%가 모바일(앱·웹)로 쇼핑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 관계자는 "모바일 쇼핑이 점차 간편해지고 편리해지면서 시니어 계층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5060 세대에게 모바일이 익숙한 쇼핑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KT&G, 전용담배 '핏' 4500원으로 인상

관련형 전자담배 붙는 세금 늘어나 부담 낮추기 위해 가격인상 최소화

KT&G는 관련형 전자담배 기기 '필(Fiit)'의 전용 담배인 '핏(Fiit)' 제품 소비자 가격을 오는 15일부터 4500원으로 200원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의 가격 인상은 관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중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에 이어, 올해 1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오른데 따른 것이다.

담배업계는 가격 인상 배경으로는 담배세가 3000원에 달하고, 소매점 수수료가 약 10%인 점을 고려해 원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결정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20개 비담 438원에서 일반담배의 89%인 750



원으로 인상되는 등 관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1739원에서 2986원으로 모두 1247원이 올랐다.

KT&G 관계자는 "1000원 이상의 제세부담금 인상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물가 상승과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IQOS)' 전용 담배 '히츠(HEETS)'의 가격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인상한 바 있다.

/박인용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 업계 첫 'GAP센터' 설립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위생 농산물 공급 고두보 GAP 농산물 취급량 대폭 확대

푸드머스가 식자재 유통기업 최초로 'GAP센터'를 설립하고 '안전·안심 농산물 공급'을 위한 고두보를 마련했다.

풀무원 푸드머스는 안전한 'GAP(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푸드머스 GAP센터'를 설립했다고 9일 밝혔다.

GAP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업·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위해 요소를 사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안전한 생산만큼 수확 후 GAP 기준에 맞는 시설을 마련하여 저장, 세척, 포장 등의 유통 단계에서 농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푸드머스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푸드머스 양지물류센터 내에 'GAP센터'를



풀무원 푸드머스 양지물류센터. /풀무원

340평 규모로 구축했다. 식자재 유통기업 중 GAP 농산물 관리 시설을 짓고 직접 운영하는 곳은 푸드머스가 최초다.

푸드머스는 자사와 계약을 맺은 전국 GAP 농가에서 공급받는 농산물을 모두 이곳으로 모아 상품화 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전달한다.

푸드머스는 이번 GAP센터 설립으로 GAP 농산물 취급량을 대폭 확대한다. GAP 농산물 매출을 지난해 88억원, 2900t에서 올해 130억원, 4300t으로 약 1.5배 이상 늘려갈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신세계인터, 스튜디오 톰보이·보브 매출 1000억 돌파

메가 브랜드 탄생... 글로벌 성장 목표

국내 여성복 시장에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새로운 메가 브랜드가 탄생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대표 여성복 브랜드 스튜디오 톰보이와 보브가 지난해 나란히 국내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스튜디오 톰보이는 1100억원, 보브는 105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각각 14.6%, 10.5% 매출이 증가했다. 2011년 중국에 진출한 보브는 중국 매출을 포함하면 총 매출이 1490억원에 달한다.

스튜디오 톰보이와 보브의 성과는 지난해 두 브랜드가 각각 탄생 40주년과 20주년을 맞은 해라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매년 수십 개의 브랜드가 생기고 사라지는 치열한 패션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성장하



보브 2017년 시그니처 20 겨울 컬렉션. /신세계인터내셔널

며 국내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77년 시작된 톰보이는 두 번의 주인이 바뀌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11년 신세계인터내셔널을 만나 스튜디오 톰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부활

했다. 패션 업계 불황 속에서 2015년 830억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1100억원으로 32.5%나 늘었다.

주요 백화점 여성캐주얼 군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브는 특유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성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겨울에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무스탕, 캐시미어 등 고급 소재와 체크 패턴을 적용한 코트로 외투 매출이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스튜디오 톰보이와 보브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려는 목표다.

보브는 중국 주요 지역에 매장을 확장해 올해 말까지 국내와 해외에서 총 매출 1570억원을 올릴 계획이다. 스튜디오 톰보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3년 이내에 아시아 시장에 스튜디오 톰보이의 첫 번째 매장을 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김유진 기자

일년 내내 '비수기' 걱정 뚝

반짝 아닌 '사계절아이템' 뜬다

카페 오가다 메인메뉴 냉·온 가능 텀브커피 정기적인 신메뉴 출시 디저트39 제과·디저트 기복 적어



/카페 오가다



/텀브커피



/디저트39

선택한 창업아이템이 계절이나 유행에 따라 비수기가 지속되거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 급격히 인기가 식게 되면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현명한 예비창업자라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사계절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창업 전문가들은 사계절 지속 가능한 메뉴 구성의 '비계절성'이 성공창업의 핵심이라 말한다. 창업 아이템 및 브랜드를 선택할 때는 계절의 변동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비수기를 대비한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카페의 경우 성수기인 여름에는 매출이 상승하지만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매출 하락으로 대부분의 매장들이 수익성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계절성 창업 아이템을 대체할 새로운 아이템으로 일 년 내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티 카페 창업이 생계형 사업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카페 오가다는 건강한 한국의 전통차

를 베이스로 다양한 맛과 형태의 잎차, 열매 등과 혼합한 차별화된 티 메뉴를 선보이며 커피를 통한 높은 카페인 섭취에 대한 우려와 겨울철 건강 관리에 대한 니즈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카페 오가다의 모든 블렌딩 티 메뉴들은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해 일 년 동안 주력 메뉴로 구성할 수 있기에 이탈 고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메뉴 제조, 재고 관리 등 매장 운영에도 효율적이다. 카페 성수기인 봄, 여름철에는 국내 특산지의 건강한 생과일주스, 스무디와 함께 아이스 블렌딩티가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며, 따뜻한 음료 소비가 이뤄지는 겨울에는 '차는 본래 따뜻하게 즐긴다'라는 소비자 인식으로, 4계절 오가다만의 브랜드 강점을 살려 비수기에도 높은 매출을 유지한다.

텀브커피는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메뉴를 정기적

으로 출시하고,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신메뉴의 경우 연 4회 계절에 맞춰 출시가 된다. 최근에는 가을을 맞아 부드럽고 달콤한 클라우드 크림 음료 3종(클라우드 비엔나·클라우드 라떼·클라우드 티라미수)를 선보였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임에도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구비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디저트39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해외 인기 디저트 39가지를 소규모 매장에 모아 판매하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케이크, 파이,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등 다양성을 살려 변화하는 트렌드나 계절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제과 디저트는 계절 변동에 따른 매출 기복이 거의 없다. 또한 브랜드 자체 제과생산센터에서 연구 끝에 개발된 완제품 출하 기술은 매장 내에서 별도로 필요로 하는 조리과정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coul.co.kr

공공근로 참여자 근무 시작... 월급 20만원 ↑

서울시 최저임금 상승 요인

서울시 공공근로 참여자의 월 임금이 지난해보다 20만 원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다. 하루 6시간 근무 때 월평균 임금은 식비, 주·연차수당, 4대 보험을 포함해 140만 원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저소득층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5500명의 시민(서울시 500

명, 자치구 5000명)이 참여한다.

시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시급 7530 원)으로 1일 6시간 근무시 일 4만6000원을 지급한다.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만원 오른다.

또한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증명서류 또는 각서 제출시 가족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게 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혁신벤처 7개 단체, 신년인사회 열고 '생태계 구축' 다짐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혁신벤처 7개 단체가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공동으로 열고 무술년 한 해를 함께 기원했다. 지난해 이들 7개 단체는 민간 스스로 혁신벤처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의지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9일 열린 '2018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최수규 중기부 차관,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안건준 벤처협회장, 윤소라 여성벤처협회장(왼쪽 여섯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커팅을 하고 있다. /여성벤처협회

르포 | 최저임금 인상의 '명과 암'

몇달 지켜보자는 사장... 자리 걱정하는 알바

알바생 기대 속 조마조마 눈치바림 점주들 인원축소 등 고민에 한숨 "사장-직원 대립 부추겨" 의견도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는 많은 알바들이 종사하는 곳 중 하나다.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보다 16.4%나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주는 사람은 주는대로, 받는 사람은 받는대로 달갑지 않다.

700만명에 이른다지만 정확한 통계를 잡기도 힘든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 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먹고 살길이 걱정이다. 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소위 '알바생'들도 시급을 더 받기 전에 자칫 일자리를 잃어버릴까 노심초사다.

수 많은 음식점, 편의점 등이 몰려있어 최저임금의 명암을 여실히 살펴볼 수 있는 서울 종로와 명동 일대를 지난 주말 다녀왔다.

◆오르는 건 좋지만 일자리 없어질까 '걱정' "시급 오르는 게 마냥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홀서빙 알바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이씨(25)의 말이다. 이씨는 전문대 자동차 정비과를 나와 중소기업에도 일했었다.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그만뒀지만 사람구하는 곳이 많지 않아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식당일을 시작했다.

하루 꼬박 12시간 일하고 있는 그는 이곳을 자신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씨는 "알바 입장에선 (최저임금 상승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기존 알바비로는 월세와 교통비 등을 내고 나면 뺏겼을 때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장님 눈치도 많이 보였던 게 사실이다. 내가 그만뒀어야 하나 걱정도 됐지만 사장님이 몇 달은 지켜보자고 해 아직까

간호사로 일했던 덕분에 일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암으로 쓰러지면서 다시 병원 일을 시작했다.

오씨는 "아직 바뀐 건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떠도는 얘기만 있다.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일당이나 근무시간이 달라질 것 같다. 나이도 있어 종일은 못하는데 그마저도 줄어들까봐..."라며 말끝을 흐렸다.

◆당장은 부담되지만...중장기적 해안 마련 '절실'

명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씨(52)는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내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명동에서 가게를 두 개 운영할 정도였다. 매니저 한 명에 직원 네 명을 뒀었지만 사드 여파를 직격으로 맞아 매출은 급속히 악화됐다. 직원은 물론 매장으로 하나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매니저와 단둘이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

박씨는 "매장 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인건비는 큰 부담이었다. 매니저한테는 말 못 했지만 차라리 아내랑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게 최선의 선택이다. 고민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 상승에 동의하며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가게주인도 만났다.

종각 일대에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당장 피해를 본다"며 하지만 "알바생들이 적게 받는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다 부정적이다. 은근히 점주와 직원이 대립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지, 현장 목소리를 전해야지 이런 큰 이슈가 가족 같은 매장 식구들과 편을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임현재 기자 ih@

저소득층 등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 공급

가구당 9000만원 이내 보증금 지원



서울시가 올해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중 1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보급한다. 지역별 고령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비례 배분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탐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에 신청해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이범종 기자

화재시 향수·디퓨저가 불씨 키워

서울 생활화학제품 절반이 위험물

서울시내 대규모점포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 제품 중 상당수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8월~11월 서울 대규모점포 9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604종 가운데 311종이 화재 위험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화장품과 향수, 손소독제, 벌레기피제 등이다. 시는 이들 제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인화성·발화성 등 성질이 확인된 311종은 손소독제와 향수, 매니큐어, 리무버, 헤어오일, 방향제(디퓨저), 차량연료 첨가제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인화점 40도 이하로 상온에

서 작은 점화원에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고위험군 제품은 195종이었다. 가장 많은 품목은 화장품(37.4%)과 방향제(28.2%)였다.

인화점이 낮은 제품을 함부로 방치될 경우, 정전기 같은 작은 점화원에도 착화 발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여름철 직사광선을 받는 밀폐공간에 방치할 경우 더욱 위험하다. 주요 제품의 인화점은 ▲손소독제 20~31도 ▲향수 16~23도 ▲디퓨저 17~126도 ▲매니큐어 10도 ▲리무버 18~51도 ▲차량연료 첨가제 14~174도다.

생활화학제품 외에도 98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제품 5만여 종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로 의심되는 제품은 5000여 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점포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혼재된 위험물 때문에 연소 확대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범종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25호(2017.9.19)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 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행복



김 주 식
세태 만화경

그날 저녁에도 빵틀 뒤집는 소리가 요란했다. 반죽 재료는 간당간당했다. 내가 사는 동네 초입에 생긴 명물 얘기다. 봉어빵 포장마차. 노점 크기부터 픽 인상적이다.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포장을 찼다. 어설플근 해도 경제적인 구조다. 빵틀 수도 적어 노는 게 없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경제원칙이 읽힌다. 그러나 운영형태를 보면 욕심이 없어 보인다. 하루 먹고살 분량만 판다. 그 소박한 경영철학이 그 재료가 바다낱 무렵이면 줄을 세운다.

규모를 확장해 판매량을 늘릴 만도 한데 아주머니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이다. 밀가루 반죽 통은 곧 비어졌고, 노점의 천막도 걸렸다. 아주머니의 얼굴에 행복감이 묻어났다. 길보통이에 덩그러니 홀로 남은 포장마차. 길포장은 아주머니의 옷처럼 무척 낡아 너털거렸다. 그 수수한 모습들을 보는 순간, 불현듯 사람들이 말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봉어빵 포장마차는 풍성한 행복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갓 구워낸 봉어빵은 따스했다. 봉지에 든 봉어빵은 허연 김을 퍼 올렸다. 봉어빵의 그 온기가 식을새라 봉지를 품안에 넣고 동동걸음을 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세상을 떠난 내 아버지가 그랬다. 그땐 동그랗게 생긴 풀빵이었다. 탕글탱글했다. 바삭거렸고, 팔소가 쏘아지며 김이 모락거렸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따스함을 가족들이 온전히 맛보게 해주고 싶어 아버지는 얼마나 종종걸음을 했던 걸까. 그런 장면이 애달파서 나도 봉어빵을 품는지도 모른다.

꼭 요맘때 봉어빵을 먹으면 이런 향수가, 뜨거운 정과 감동이, 어떤 위안이 가슴으로 차오른다. 봉어빵의 행복! 천원 짜리 지폐 한 장으로 서너 개의 소담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큰 부피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풍경들이 여기저기서 펼쳐진다. 봉어빵을 한 입 깨물며 얼굴이 환해지는 동네 꼬마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떠올리며 한 봉지씩 사 들고 품에 넣고 가는 사람들. 덩으로 한 개 더 얹어주는 정겨움.

작고 소소한 것에서 느끼는 행복! 봉어빵 한 개의 행복이 이렇게 일상의 삶을 연소시킬 새롭고 산뜻한 힘을 주고 있었다. 춥고 마음이 스산할 땐 그런 풍경 속으로 풍덩 빠지고 싶은 까닭이다. 봉어빵 포장마차를 만나면 발걸음이 먼저 앞

고 그곳으로 재촉한다. 행복을 어찌 수치로 잴 수 있을까. 봉어빵은 그러나 관념으로 서성거리는 행복을 구체적인 온도로 전해주고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것이다. 거기에는 일상을 다독여 주는 맑은 영혼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보니 소소한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우리 주변에 많다. 멀리 있는 것도,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도, 그렇다고 거창한 것도 아니다. 시야를 넓히면 공짜도 널렸다. 절정으로 달려가는 이 겨울, 산과 강, 들판을 덮은 흰 눈을 보라. 그 설경을 보고 느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마는 그것이 전해주는 행복의 부피만큼 짙았는지? 영혼이 없는 허상만 본 건 아닌지? 날개로 300원에 불과한 그 소소한 봉어빵 한 개가 그렇게 물어오는 것만 같다.

산과 강은 계절별 옷을 갈아입고 나와 세상을 즐겁게 한다. 비, 바람, 눈, 물안개 같은 날씨는 이런 풍경을 아름답게 색을 입히는 질료들이다. 휴자는 자연에서 행복을 얻으려면 그 풍경 속 주인공이 되라고 했다. 주변의 공짜 눈으로 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행복을 느끼라는 주문일 것이다. 여기엔 대전제 하나가 있다. 그것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라는 것. 소소해서 주변 이웃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행복이 있는지? 되짚게 하는 봉어빵이다. /인문인-세태평론가

아모레퍼시픽 故 서성환 선대회장 15주기 추모식

사내 추모방송·장원기념관서 참배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 회장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장원기념관과 전국의 사업장에서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 영면 15주기 추모식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2003년 1월 9일 타계한 장원(粧源) 서성환 선대회장은 창업 이래 아모레퍼시픽을 일구어낸 창업자다. 대한민국 화장품 역사의 선구자이자 나눔과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인, 차(茶) 문화를 계승·발전시킨 다인(茶人)으로 평가받는다. '아름다움과 건강으로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창업자의 의지는 아모레퍼시픽의 소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날 전국의 아모레퍼시픽 사업장 임직원은 사내 추모 방송을 통해 창업자의 뜻과 업적을 기리고 아모레퍼시픽 원로 임원 30여 명은 고인의 추모 공간인 장원기념관을 찾아 선영을 참배한다. 이번 주에는 신입 팀장급 직원들의 장원기념관 방문이 이어지게 된다.

앞서 지난 2일 아모레퍼시픽그룹 신본

사에서 열린 2018년 시무식이 후에는 아모레퍼시픽 현직 임원이 참여한 추모식이 거행됐다.

추모식에서는 지난해 신본사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고 세 번째 용산 시대를 시작한 의미를 담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신본사 준공 인가증'과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한 '3억 달러 수출의 탑'이 봉정됐다.

이날 전국의 아모레퍼시픽 사업장 구내식당에서는 점심시간에 선대회장의 창업 정신이 깃든 추모 음식 '장떡'이 제공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추모식을 통해 창업자 정신을 계승하고 2018년에도 '원대한 기업(Great Brand Company)'을 향한 아름다운 항해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미래에셋박현주재단 5년간 희망도서 7만권 지원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전국 아동복지 시설 등을 통해 책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도서를 지원하는 '제5회 미래에셋 희망드림(book) 도서지원'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복지시설 및 초·중·고교 교사의 추천으로 대상자 1352명을 선발해 작년 동안 2회에 걸쳐 1인당 12권씩 총 1만6200여권의 책을 전달했다. 희망드림 도서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7만권(7만1772권)이 넘는 도서를 지원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희망드림 도서지원은 아이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식 도서를 선물하는 사업이다. 도서관이나 시설에 기증된 도서를 전체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빌딩. /연합뉴스

가 '공유'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 맞춤 도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은 도서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교사들에게는 독서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기개발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김민호기자 kmh@

'약발' 안 먹히는 가상화폐 경고



기지 수첩
안 상 미
(파이낸스&마켓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잇단 경고가 도대체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이라며 내놓을 수록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시세가 더 비싼 '김치프리미엄'은 확대됐고, 이런 '대박'을 자신만 놓칠 수는 없다며 뒤통을 때리는 '코린이(코인+어린이)'만 늘어났다.

정부의 경고에 힘이 빠진 것은 처음부터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스텝이 꼬일대로 꼬인 탓이다.

지난달 말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발표에 가상화폐 가격은 순간 급락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폐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정부의 권한 으뜸장처럼 여겨진 셈.

지난 8일 금융위원장의 경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 나아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이른바 위장(전산·해킹)사고 가능성이나 시세 조작, 유사수신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브리핑이 끝난 이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어떻게 직접 조사할 지를 구체적으로 묻자 이번엔 다른 답이 돌아왔다.

금융위 실무자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나가신 것 같다"며 "아직까지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직접 조사할 방안은 없다"고 정정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만으로 문을 열 수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허가제로 바꾸고 제도권으로 끌어 들였다. 정부의 공식 인정처럼 여겨지며 투기열풍이 거세졌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다. 역시 투기열풍이 잦아들기는 커녕 사형화되는 역효과를 봤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 어디쯤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어떤 방법을 써도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부작용을 감내할 지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하루 수 조원이 거래되는 시장을 지하에 돌지, 지상에 돌지 말이다. /smahn1@metroseoul.co.kr

인사

- ◆ **메트로신문** (승진) ◇차장대우 △편집국 파이낸스&마켓부 안상미 △편집국 산업부 양성운 △편집국 편집부 오규정 △광고마케팅팀 AD기획부 신동렬 (전보) △편집국 정책사회부 차장대우 한용수 △편집국 정책사회부 이범중 △편집국 정책사회부(세종시) 최신웅 △온라인뉴스부 연예·스포츠팀 신원선 △온라인뉴스부 연예·스포츠팀 김민서
- ◆ **한국국토정보공사** (신규)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여원찬 △충북지역본부장 이종환 (전보)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주한돈
- ◆ **한국국방연구원** △기획조정부장 조관호 △안보

- 전력연구원 유영철 △군사발전연구원장 진재일 △국방자원연구원장 김중태 △국방인력연구원장 도근 손 △전력투자분석센터장 이호석 △행정지원부장 최원장 △정책개발실장 고원 △대의협력실장 박상현 △자식정보실장 최선규 △감사실장 오태인
- ◆ **포스코** (승진) ◇부사장 △철강사업본부장 정탁 △철강생산본부 포항제철소장 오형수 ◇전무 △철강생산본부 프로젝트 선재제어냉각PJT팀장 박용규 △정도경영실장 노민용 △경영지원본부 원로2실장 정규진 △CSP(브라질) 김동호 △철강생산본부 포항제철소 FINEX상용화추진부장 이상호 △경영지원본부 HR혁신실장 양원준 △철강생산본부 포항제철소 STS담당부소장, POSTRIP기술개발 추진반장 겸임 이은석 △기술투자본부 기술연구원 프로젝트 HIFAME연구PJT팀장 김선규 △철강생산본부 철강생산전략실장 이시우 △철강사업본부 철강사업전략실장 김광수 △가치경영센터 해외사업관리실장 임승규 △철강사업본부 철강술선마케팅실장 주세돈 △철강사업본부 스테인리스마케팅실장 배재택 △기술투자본부 정보기획실장 정덕균 △POSCO-Maharashtra 법인장 방길호 (신규) ◇상무 △안윤기 △이유경 △송용삼 △이희근 △안근식 △배철민 △한형철 △김진

- 호 △남재복 △홍삼영 △이상호 △김상균 △서인식 △이백희 △정범수 △이주협 △윤훈 △염기천
- ◆ **삼성물산** (승진) ◇대표이사 사장 △건설부문장 이영호 △상사부문장 고정석 ◇대표이사 부사장 △리조트부문장 정금용
- ◆ **NH투자증권** (신규선임) ◇부장 △Global Trading Center 김승현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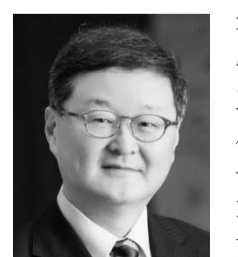
- ▲김주현씨(전 경북도교육감) 별세, 정기가장 실내테니스장 대표·상기씨(김마누 대표이사) 부친상, 허영(경북학교안전공제회 부장)·김중세씨(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장인상= 8일 용산안동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54-820-1494
- ▲김동수씨 별세·김민석(주동회건축 대표) 민환씨(삼성SDI연구소 수석) 부친상·허무호씨(MBC 부국장) 빙부상, 이해영씨(경기 화성 니루고 교사) 시부상=8일 대구 웰니스1004병원, 발인 10일 오후 12시 30분, 053-522-0444
- ▲최영욱씨 별세, 박준(뉴시스 대구경북취재본부 기자)씨 외조모상= 9일 오후 12시40분,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043-279-0144



한국증권, 2018 첫 KLPGA투어 개최 조인식 한국투자증권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유상호 사장과 SBS 플러스 김계홍 사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강준자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 KLPGA투어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with SBS Golf' 대회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첫 KLPGA투어 대회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 트윈도브스 골프클럽에서 개최된다. /한국증권

밀레니엄 서울힐튼 35년만에 첫 한국인 총지배인

씨디엘호텔코리아, 이종현씨 선임



밀레니엄 서울힐튼에 첫 한국인 총지배인이 선임됐다.

씨디엘호텔코리아는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신임 총지배인으로 이종현(51·사진)씨가 부임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호텔 개관 35주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 서울힐튼 첫 한국인 총지배인이다.

이 총지배인은 신라호텔 국빈 VIP 담당 지배인과 마이스 팀장, 서울클럽 부총지배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상무이사, 리츠칼튼 서울 마케팅 본부

장, 서울 가든호텔 총지배인, 스탠포드 코리아 대표이사 겸 총지배인, 차움 라이프 센터 총지배인 등을 역임했다.

또 관광협회 중앙회 협회 중앙회 관광호텔업 위원회 부위원장, 문화관광부 복합리조트 선정 심사위원, 관광협회 중앙회 호텔 등급 심사위원 등도 거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

초대형 스케일로 액션의 신세계를 보여줄 두 작품

블록버스터 VS 영화

올겨울 한파를 한 방에 날려버릴 짜릿한 액션 블록버스터 두 편이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와 리암 니슨 주연의 '커뮤터'가 그 주인공이다.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
압도적인 비주얼로 긴장감 선사

커뮤터
열차 안에서 펼쳐지는 역동적 액션



'메이즈러너:데스 큐어' 스틸컷.

/이심세기픽스코리아



'커뮤터' 스틸컷.

/메가박스(주)플러스엠

◆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 극강의 액션 스킬

시리즈 사상 최고의 스킬과 스케일을 예고하는 블록버스터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 (감독 웨스 볼)가 오는 17일 개봉한다.

영화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는 인류를 위협하는 조직 '위키드'에 맞서기 위해 다시 거대한 미로로 들어간 주인공 톰아스와 '러너' (밤마다 살아 움직이는 미로를 달려 탈출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들의 마지막 생존 사투를 그린다.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는 대서사의 마지막답게 압도적인 비주얼을 담았다. 전작에서 '메이즈 러너'의 미로는 지금까지 어떤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압도적

인 스케일로 최고의 긴장감을 선사했다. 덩굴 식물로 뒤덮였던 미로는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할뿐만 아니라 미로의 벽이 위협적인 칼날로 변하는 모습, 미로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그리버'에게 쫓기는 러너들의 처절한 생존 액션은 관객에게 짜릿한 스킬을 전했다.

전편에서 위험한 미로를 탈출해 폐허가 된 도시 '스코치'에 도착했던 러너들이 이번 편에서 또 다시 미로 속으로 들어간다. 위키드 본부에 갇힌 러너 중 한 명인 민호를 구하기 위함이다. 복잡하고 거대하게 얽힌 미로 사이에 위치한 위키드의 본부이자 최후의 도시로 향하는 러너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매 시리즈

마다 상상을 뛰어넘는 액션과 볼거리를 선보인 시리즈의 최종편에 대한 관객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지구를 덮쳐 인류의 대부분을 몰살한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개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위키드가 사실은 미로 속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한 점을 비롯해 추악한 실체가 완전히 공개된다.

◆ '커뮤터' 리암 니슨의 열차 액션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흥행 불패 신화 리암 니슨이 영화 '커뮤터' (감독 자음 콜렛 세라)로 3년 만에 스크린 컴백에 나선다.

영화 '커뮤터'는 제한 시간 30분, 가족이 인질로 잡힌 전직 경찰 마이클(리

암 니슨)이 사상 최악의 열차 테러범들에게 맞서는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다. 리암 니슨 표 브랜드 액션 3부작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이번 영화는 '테이큰' 시리즈, '논스톱' 제작진과 리암 니슨의 만남, 그리고 제작비 6000만 달러의 초대형 스케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리암 니슨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생동감 넘치는 카메라 연출은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듯한 리얼한 스토리와 속도감 있는 전개로 쏙쏙한 긴장감과 짜릿한 전율을 일으킨다.

여기에 뉴욕 도심에 가로지르는 열차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폭발적

인 액션 시퀀스는 관객들에게 눈을 땔 수 없게 만들 예정. '커뮤터'를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 리암 니슨은 긴박감 넘치는 추격전과 총격전, 역동적인 육탄전 등 열차 안팎을 넘나들며 액션 연기를 펼친다. 무엇보다 한정된 시간인 30분, 한정된 공간인 열차 안에서 펼쳐지는 액션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앞서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인 '설국열차'와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역시 열차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로 관객을 사로잡은 바 있다. 흥행 열차의 바통을 이어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개봉.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폭발적 스피드가 매력... 올림픽 '흥행보증수표'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4 아이스하키

제한 없는 선수교체로 속도감 짜릿 격한 몸싸움도 아이스하키만의 매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전 종목 중 티켓 값이 가장 비싼 종목은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이다. 최고 90만원으로 인기 종목으로 꼽히는 피겨스케이팅 결승(80만원)보다 높다.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의 '흥행 보증 수표'로 불린다. 전제 입장 수입을 보면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50%,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46%의 비중을 차지했다.

소치올림픽에서는 타 종목보다 월등히 높은 티켓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 티켓 최고가는 1320달러(약 147만원)로 타 종목보다 비쌌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VTB 아이스 팰리스에서 열린 2017 유로하키투어 채널원컵 개막전 한국-캐나다 경기에서 신상우(가운데)가 캐나다 선수들에 둘러싸인 채 퍽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국팀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랭킹 1위 캐나다에 2-4로 석패했으나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희망을 밝혔다.

/연합뉴스

금메달 수가 2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하키가 동계올림픽의 대표 인기 종목으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스피드 때문이다.

경기를 시작할 때의 속도감이 끝날 때까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그 비결

은 바로 제한 없는 선수 교체다. 아이스하키는 말 그대로 얼음 위에서 하는 하키다. 올림픽 엔트리 수는 골리(골키퍼)를 포함한 남자 25명, 여자 23명이다. 총 6명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진행하는데 골리를 제외하고 공격수 3명, 수비수 2

명으로 이뤄진 한 조를 라인이라고 한다.

보통 1라인부터 4라인까지 나뉘어 경기에서 나서는, 한 라인이 빙판 위에서 경기하는 시간은 약 50초 가량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라인이 투입된다. 20분씩 총 3피리어드로 진행되는 경기에서 50초~1분 간격으로 쉴새 없이 선수가 교체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폭발적인 스피드가 경기 끝까지 지속된다.

격투를 방불케하는 격렬한 몸싸움 역시 아이스하키만의 매력이다.

5명의 스케이터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면서 고무로 된 납작한 볼 '퍽'을 연결해 상대팀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높이 1.22m, 너비 1.83m의 골문 앞에서 퍽을 막는 골리는 마스크, 체스터, 레그 패드, 블로커, 글러브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골문을 향해 날아오는 퍽이 총알처럼 빠르기 때문이다. 슛이 강한 선수들의 퍽 속도는 160km 이상 나오기도 한다. 골리아닌 스케이터도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한국에서 아이스하키는 야구, 축구처럼

높은 인기를 얻는 종목은 아니다. 국내 남자 실업팀이 단 3개(안양 한라, 하이원, 대명 킬러웨일즈)에 불과할 정도로 비인기 종목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 아이스하키는 동양인 최초로 NHL 스탠리컵을 두 차례 들어올린 백지선 감독과 NHL 스타 선수 출신 박용수 코치의 부임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백지선호'는 평창올림픽 A조에서 캐나다, 체코(6위), 스위스(7위)와 맞붙는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개최국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서 첫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여자 대표팀의 세계랭킹은 현재 22위로 남자 대표팀(21위)보다 1계단 낮지만 열정 만큼은 남자팀 못지 않다.

여자 대표팀은 지난해 열린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최초로 중국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으며, 지난해 4월 세계선수권 4부리그에서 5전 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 3부 리그로 승격했다.

이후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실력을 다진 여자 대표팀은 평창올림픽에서 스웨덴(5위), 스위스(6위), 일본(9위)과 B조에서 격돌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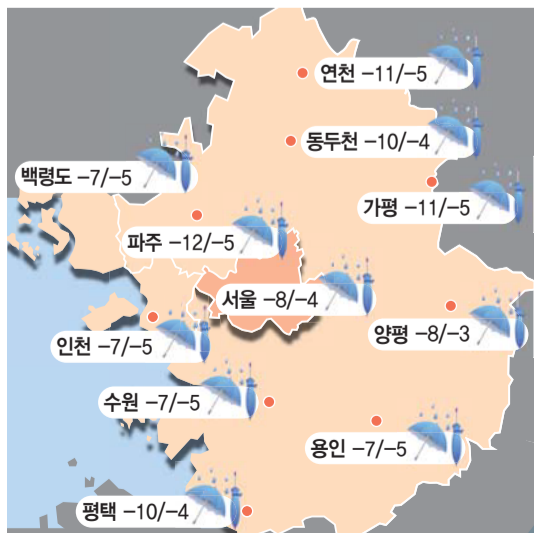
해돋이 / 07:47 | 해질 / 17:32

1월 10일
음력 : 11월 24일

수도권 날씨

-8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하는 손흥민(토트넘)의 몸값이 7260만유로(약 929억원)로 평가됐다.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5대 빅리그에서 전체 56위다.



▲ 북한이 9일 관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남북 체육교류의 디딤돌이 된 '국기(國技)' 태권도가 평창올림픽에서도 화합의 중심에 서게 됐다.

▲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시즌 프로축구 K리그에서 활동한 심판들은 주심 1인당 평균 4300만원, 부심 4000만원의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 김시우, 김민휘, 배상문 등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코리아 3인방이 12일부터 나흘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PGA투어 소니오픈에서 새해 첫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해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편수비형 미드필더 코너 채프만을 영입해 올해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

▲ 지난해 하반기부터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 도입됐던 비디오판독(VAR)이 올 시즌에는 K리그 챌린지(2부리그)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 공룡시대 살아남기 신개념 게임 '듀랑고' 넥슨의 도전 09



[산업] 에쓰오일 "5조 프로젝트 완공 디지털 회사로" Life 10



79개 전문대 한자리에... "발품 팔면 선택 폭 넓어진다"

내일까지 aT센터에서 진행 정시 모집인원 1만6천명 늘 듯

대학별·현직 교사 상담 가능해 진로 정보 해답 얻을 수 있을 것

"인터넷으로 입학정보 찾을 땐 답답했는데, 학교 선생님과 직접 상담을 해보니 확신이 들어요."

9일 오전 10시 양재동 aT센터. 전국 79개 전문대학이 한자리에 모였다. 4년제 일반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다. 취업률에서 우위를 보이는 전문대 진학 열기가 느껴진다.

올해 전문대 정시모집 인원은 136개 대학 2만7999명으로 전체 인원의 13.6%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시모집 이월인원을 감안하면 실제 모집인원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교협은 수시모집 인원의 약 10%가 정시 모집으로 이월돼 실제 모집인원은 약 1만6000여명 정도 증가될 전망이다.

박람회장에는 친구와 함께 온 수험생과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방문한 학생, 아버지나 어머니 등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수험생이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학과를 문의했지만, 일부는 자신의 성적으로 갈



9일 오전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18학년도 전문대학 정시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

수 있는 유망 학과나 특성과 학과 합격 여부를 타진했다.

대림대학교 입학전략팀 김시영 씨는 "상담하는 학생들의 80%는 자신의 점수로 입학이 가능한 학과나 전형을 상담받길 원하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입학을 원하는 학과의 합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람회장에는 79개 대학별 상담부스 외에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소속 현직 교사의 상담 부스도 별도로 마련돼 상담이

가능하다. 올해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대학별 환산점수도 주요 변수다.

이날 상담에 나서는 예산예화여자고등학교 권혁일 교사는 "올해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등급만 나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서 "다만, 수험생 절반정도가 3~4등급에 속해 있어, 대학별 환산점수가 후하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 교사는 "발품을 팔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내가 갈 대학이 더 많아진



'2018학년도 전문대학 정시입학정보박람회' 모습. /사진=손진영 기자 son@

다"면서 "박람회에 직접 나와 대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과 상담하다보면 자신의 진로는 물론 어느 대학에 가야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4년제 대학 2018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이 이날 진행되면서, 오전 중에는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인덕대학교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이 대학 비서학과 지원을 결정했다는 김현주(21) 씨는 "비서학과는 업종별 취업의 폭

이 넓고 해외 기업 취업의 길도 많은 것 같아 지원할 생각"이라며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을 땐 답답한 부분이 많았지만, 직접 대학 관계자로부터 상담을 받으니까 어디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줄었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 실내건축과를 지원 예정인 김민지(21·가명) 씨는 "지난해 수능 성적 기준을 통해 합격 가능성을 직접 얘기들이니 믿음이 간다"면서 "직접 나오길 잘했다"고 했다. 김 씨는 4년제 일반대학 관광 계열 학과도 지원할 계획이지만, 통학이 편리한 수도권 전문대에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했다.

박람회를 준비한 전문대교협 황보은 사무총장은 "학벌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취업조차 어렵다"면서 "전문대 입학률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나서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문대 정시 입학정보 박람회에는 수도권에서 인덕대, 명지전문대, 대림대, 동양미래대, 인하공전, 연성대 등이 지역별로는 대구 계명문화대와 영남이공대, 경북 대경대, 대전 우송정보대, 충남 아주자동차대, 충북 강동대, 세종 한국영상대, 전남 고구려대 등 전국 주요 대학들이 대거 참가했다. 박람회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되고 참가비는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등 자신의 점수를 짐작하면 더 효과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LG화학·도로공사 등 인턴채용 문 활짝

채용연계형 인턴채용 관심 ↑ 성실·적극적인 자세 중요해

올해 상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채용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구직자들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인턴사원 모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제공한 2018년 채용연계형 인턴채용 정보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한국도로공사, 하나투어, 세아베스틸, 조아제약 등이 채용형 인턴을 채용한다.

LG화학은 '2018년 상반기 산학협력 인턴사원'을 기초소재사업본부, 전지사업본부, 정보전자소재사업본부, 재료사업본부, 생명과학사업본부 등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정규 4년제 대학을 올해 8월 졸업예정자나 수료자는 지원할 수 있다. 인턴십 종료 후 졸업요건을 갖추면 올해 7월 1일 입사가 가능해야 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회화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 오는 1월 16일까지 LG그룹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서류접수를 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이다. 경영, 법정 등 행정직과 토목, 건축, 전기, 조경, 기계, 설비, 전산, 전자통신 등 기술직을 선발한다. 4개월 내외로 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 적정수준 이상인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지원자격에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이 없다는게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

기업/공사	모집 부문	접수 기간
LG화학	2018년 상반기 산학협력 인턴채용	2017.12.27 ~ 2018.01.16
한국도로공사	2018년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2018.01.03 ~ 01.12
하나투어	2018년 상반기 대졸 공채연계형 인턴	2017.12.29 ~ 2018.01.12
세아베스틸	2018년 채용 전환형 인턴사원 모집	2018.01.08 ~ 01.14
조아제약	2018년 정규직 전환형 인턴 공개채용	2018.01.08 ~ 01.17

/사람인

특징이다. 다만 토익, 텡스, 토플, 오픽, 토익스피킹 중 하나는 필수 어학기준으로 충족해야 한다. 기술직의 경우 선발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지원서는 오는 1월 12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하나투어는 대졸 공채연계형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근무기간은 2월~4월로 총 3개월이며, 현장근무와 과제수행, 면접 등의 평가를 통해 공채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모집분야는 영업과 상품개발기획이다. 관광동역안내사와 여행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제2외국어 능통자, 공모전 및 각종대회 수상 경력자 등을 우대한다. 서류접수 기간은 1월 12일까지다. 하나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세아베스틸 역시 채용 전환형 인턴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기획, 전략, 해외영업, 구매 등이며, 부문별로 전공 우대사항이 있다. 근무기간은 2월~4월이며, 3개월 인턴 근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 4년

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면접·2차면접, 채용검진을 거친다. 1월 14일까지 세아베스틸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조아제약은 2018년 공개채용으로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우수탁사업팀, 학술팀, 신제품연구팀, 공무팀, 약국영업부 등이다.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면접, 최종 면접의 전형절차를 거치며, 2개월 간 정규직 전환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선발된 인원은 서울본사를 비롯해, 수도권, 대전, 호남, 경북, 경남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서류접수는 1월 17일까지 사람인 즉시지원을 통해 할 수 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인턴 과정은 기존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기에 적합한 인재인지, 해당 업무를 잘 담당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만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스마트폰 끄고 글을 써요

9일 오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에서 열린 '2018 이화 에크리' 대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글을 쓰고 있다. /연향뉴스

올해 건강 키워드는 '가심비', '포미족'

젊은층, 건강에 대한 투자 늘어

2018년 무술년을 맞아 건강 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가심비' '일코노미' '포미족'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비타민하우스는 올해 건강 분야의 트렌드를 예측한 결과 ▲가심비보다 가심비 ▲일코노미(1인 가구와 이코노미의 합성어) ▲나를 위해 투자하는 포미(For Me)족 등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가심비(가격대비 성능)를 넘어 심리적 만족까지 제공해주는 '가심비'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 불황기에도 자신에 대한 투자에는 지갑을 열고 있다. 심리적 만족과 안정을 주는 제품에는 보다 과감해지는 소비패턴도 보이고 있다.



/비타민하우스

비타민하우스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자 실태조사에서도 "본인이 섭취하기 위해 구매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준다.

또 다른 트렌드인 '포미족'도 건강식품 분야의 주요 키워드다. 몰로(YOLO)족, 자존감 세대 등의 추세에서 보듯이 세대가 젊을수록 자신을 위한 투자에 아끼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 LG전자는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과 스켈레톤팀, 피겨 차준환 선수를 후원합니다



아이스하키
신소정 선수

아이스하키
한수진 선수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아이스하키
박종아 선수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스켈레톤 선수들을
LG전자가 응원합니다



감동의 2018년! 1등 LG 올레드 TV 특별전(2017.12.22~2018.2.28)

행사1. LG 올레드 TV 구매 인증 고객 대상 총 2,018명에게 황금 20등 다양한 경품 제공
행사2. UHD 화질급 LG TV 구매시, '티브이'지상파 UHD 방송/VOD 서비스 3개월 무료 이용 혜택 및 UHD 안테나 무상 설치

*구매 모델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LG전자 홈페이지 및 공식 판매처에 문의하세요